



부

심의·의결 사례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
심의백서

제1장 자체심의 의결 사례

1

자체심의 의결 사례

1. 경고결정문 게재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21
언론사	주식회사 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
심의대상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전라매일 2025년 4월 2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 제하의 칼럼2. 전라매일 2025년 4월 30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2)」 제하의 칼럼3. 전라매일 2025년 5월 1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3)」 제하의 칼럼4. 전라매일 2025년 5월 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4)」 제하의 칼럼5. 전라매일 2025년 5월 13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5)」 제하의 칼럼6. 전라매일 2025년 5월 16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6)」 제하의 칼럼7. 전라매일 2025년 5월 22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7)」 제하의 칼럼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2. 주식회사 전라매일신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전라매일 11면에 [별지2] 경고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은 심의대상기사가 게재된 지면인 2025년 4월 29일자 11면의 사설 「청년 이탈 막고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기울여야」의 제목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칼럼을 연속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경고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칼럼을 연속 게재하여(2025년 4월 2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 등 7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 는 시작되었다(1)



최공섭
프리랜서 PD

“
이재명은
호남권
경선에서도
88.7%를
득표하며
또다시
압승으로
대세론을
확인했다
”

“민주당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내 삶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이 호된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재명은 4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도 88.7%를 득표하며 또다시 압승으로 대세론을 확인한 가운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거쳐,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90%대로 기록적인 압도적 1위로 민주당 대통령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다.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라는 선언은 서구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48년 정부 수립이후 대통령이란 권력자로서 최초로 ‘훌륭한 도구인 이재명’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되고자 한 이재명 그가 넘어온 시간들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공직자로서의 마음은 매우 단순하다. 그가 첫 공직을 맡은 성남 시장 시절 한 인터뷰가 오늘의 이재명을 있게 한 단순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매년 연초에는 각 동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누구든지 아무나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불평이나 불만이 있으면 다 써 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병행해서 공무원들에게도 시민의 불편사항인 민원을 많이 찾아온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를 시행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견하러 다니며 ‘혹시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퇴임할 때 보니까 그 많은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대한민국 안에도 민원이 1년이면 수천만 건은 될 것인

데 이런 불만, 불편한 것, 궁금한 질문 등을 모아볼 수 있다면 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작은 불만 사항 하나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그가 걸어온 시간은 결코 쉽지않았다. 1963년 경북 안동군 예안면 청량산 자락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조그만 땅뽕기까지 노름에 날리고 1977년 2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했고, 그토록 원하던 중학교 대신 성남 상대원 공단의 공장에서 소년 공으로서 삶을 시작했다. 그는 공장일 대신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를 막았고, 자서전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2022, 위즈덤 하우스》를 보면 가난의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17살 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첫 시도는 연탄불이 저절로 꺼졌고, 2번째는 둘째 형인 이재영이 구해줬으며, 이 때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러 갔다가 눈치챈 약사가 소화제 같은 다른 약을 대신 쥐 주지 못했다. 그래서 다짐한 것이 ‘그래 죽도록 살아내자’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눌러 산재를 당한 한쪽 팔이 영구적으로 휘어져 버린 장애인이 되었다.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해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나서

는 26살의 젊은 나이로 경기도 이천에서 변호사로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권익활동을 했다.

본격적으로 공직에 나서게 된 일이 2004년, 바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당시 성남시민들은 공공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18,59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했지만 변호사로서 벽에 부딪치자 직접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다. 결과는 전직 시장인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다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재출마해 51.2%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어 공직의 인생이 시작하였다. 전임 이대엽시장이 남겨 놓은 순부채 4,572억원을 청산하고도 지방자치 지방단체장 최초로 ‘청년배당·무상 산후조리·무상교육 지원’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바로 2016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로 청년배당금 5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어린시절 그토록 소망했던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육비를 지급, 신생아 약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실시하였다. 그저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을 대리하는 머슴과 일꾼, 도구로서의 공직자의 삶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몸과 발로 이뤄낸 공약 이행률이 무려 94%의 엄청난 기록을 세워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내었다. <계속>

(20.5*22.8)cm

▲ 전라매일 2025년 4월 2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

“이재명은 호남권 경선에서도 88.7%를 득표하며 또다시 압승으로 대세론을 확인했다”

“민주당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내 삶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이 호된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재명은 4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도 88.7%를 득표하며 또다시 압승으로 대세론을 확인한 가운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거쳐,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90%대로 기록적인 압도적 1위로 민주당 대통령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다.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라는 선언은 서구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이란 권력자로서 최초로 ‘훌륭한 도구인 이재명’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되고자 한 이재명 그가 넘어온 시간들이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공직자로서의 마음은 매우 단순하다. 그가 첫 공직을 맡은 성남시장 시절 한 인터뷰가 오늘의 이재명을 있게 한 단순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매년 연초에는 각 동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누구든지 아무나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불평이나 불만이 있으면 다 써 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병행해서 공무원들에게도 시민의 불편 사항인 민원을 많이 찾아온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를 시

행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견하려 다니며 ‘혹시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퇴임할 때 보니까 그 많던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거의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대한민국 안에도 민원이 1년이면 수천만 건은 될 것인데 이런 불만, 불편한 것, 궁금한 질문 등을 모아낼 수 있다면 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작은 불만 사항 하나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진짜 민주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그가 걸어온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1963년 경북 안동군 예안면 청량산 자락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조그만 땅뽕기까지 노름에 날리고 1977년 2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했고, 그토록 원하던 중학교 대신 성남 상대원 공단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서 삶을 시작했다. 그는 공장일 대신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를 막았고, 자서전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2022, 위즈덤 하우스>를 보면 가난의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17살 때 자살을 시도했는데 첫 시도는 연탄불이 저절로 꺼졌고, 2번째는 둘째 형인 이재영이 구해줬으며, 이때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려 갔다가 눈치챈 약사가 소화제 같은 다른 약을

대신 쥐 죽지 못했다. 그래서 다짐한 것이 '그래 죽도록 살아내자'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눌러 산재를 당한 한쪽 팔이 영구적으로 휘어져 버린 장애인이 되었다.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해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 연수원을 마치고 나서는 26살의 젊은 나이로 경기도 이천에서 변호사로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권익 활동을 했다.

본격적으로 공직에 나서게 된 일이 2004년, 바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당시 성남 시민들은 공공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18,59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를 했지만 변호사로서 벽에 부딪히자 직접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다. 결과는 전직 시장인 한나라당 이대엽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다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재출마해 51.2%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어 공직의 인생이 시작하였다. 전임 이대엽 시장이 남겨 놓은 순 부채 4,572억 원을 청산하고도 지방 자치 지방단체장 최초로 '청년 배당·무상 산후 조리·무상 교복 지원'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바로 2016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에게 분기별로 청년배당금 5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어린 시절 그토록 소망했던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급, 신생아 약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실시하였다. 그저 시장의 권한을 행세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을 대리하는 머슴과 일꾼, 도구로서의 공직자의 삶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몸과 발로 이뤄낸 공약 이행률이 무려 94%의 엄청난 기록을 세워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내었다.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2)



최공섭
프리랜서 PD

“

경기도지사
였을 때
보여준
수 십년간
편하게
운영해 온
경기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단번에
뿌리 뽑아버린
그의 결단력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

‘K-민주주의’,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재명의 정치드라마!

그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시도한 경기도 내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은 그가 진정한 도민의 일꾼임을 선명하게 부각시킨 정책이었다.

그동안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경기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뿌리 뽑았다. 처음 수십 년간 운영했던 불법 시설물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반발도 거셴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수많은 협박까지 당했지만 그의 노련한 행정 수완으로 협상과 설득을 통해 일방적이고 강압적 철거가 아니라 놀라게도 상인들이 자진철거하는 행정력을 발휘했다.

드디어 이재명의 강력한 의지와 자발적인 상인들의 협조로 2020년 7월 기준 198개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1만 1383개의 철거를 완료했다. 이런 계곡 불법 철거물 철거는 거의 기적같은 자진철거방식이어서 경기도민 스스로도 놀라워 한 성공적 정책 실행이었다.

이런 지지는 지난 4월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원이 열렸고 바로 그날 이미 후원금 법정 한도인 29억4천만원을 모금되었고 6만3천여명의 국민이 후원에 참여하여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 낸 것은 20대 대선 경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99%가 10만원 미만의 정성 가득한 소

액 후원금을 모아준 것은 바로 국민의 희망이 모아진 것 아닌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오직 말뿐이었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저버리고 가장 불공정한 그리고 가장 비상식적인 나라로 망가뜨려 놓은 나라를 이제 진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기 위해 나선 이재명에게 국민들은 그저 번지르르한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몸으로 바로 뛰여 실천하는 진정한 대통령, 도구가 되기를 자원한 이재명이다.

대부분 백 년도 못사는 인생에서 이재명이 살아낸 굴곡진 삶 속에서 그를 향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상위계층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청산하지 못한 친일 반민족세력은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 윤석열이란 괴물을 탄생시키기가 담당하게 대한민국 상위계층의 권력의 특혜를 누려왔다.

국민의 힘의 정치인들부터 재벌 권력과 이들의 손발이 된 언론, 종교 세력들까지 광범위하게 보수를 자처하며 권력을 유지 장악되어 왔다. 이재명이란 이런 기득권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라 작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도구, 일꾼이 되고자 한 그의 출연은 처음부터 눈의 가시였다. 그를 향한 집중포화 사범 리스트라는 골레로 전과 4범의 범죄자로 낙인찍어 악마화 시켰다.

바로 무고 및 공무원 자객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 등 4건인데 이재명 전과 4범 실체는 대부분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불가피하게 생긴 전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 특수 공무방해는 성남시팀의료원설립운동 대표로서 낚치기 표결 처리한 성남시의회서 시민들이 항의한 사건에서 벌어진 낚치기 시의원 3명이 폭행이나 의회 집 일부도 파손된 결과였다.

기득권의 이익의 최고 대변자인 윤석열 검찰 정권의 공격은 더 집요했다.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사건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난 위증 교사사건, 쌍방을 대북송금사건, 경기도 법원 카드 사적 유용사건등 727일 가량의 검찰의 집중 수사와 376회의 압수수색 등 이재명 죽이기 조사가 이어졌다. 이런 직접적인 윤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나 압수 수색 뿐만 아니라 언론의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 보도는 그 수위가 심상치 않다.

언론의 노골적인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동안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 누리고 저지르는 온갖 부정 부패와 비리를 용납하지 않을 그의 개혁적인 행동과 실행력, 경기도지사였을 때 보여준 수 십년간 편하게 운영해 온 경기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단번에 뿌리 뽑아버린 그의 결단력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

(20.5~30.9)cm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2)

“경기도지사였을 때 보여준 수십 년간 편하게 운영해 온 경기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단번에 뿌리 뽑아버린 그의 결단력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K-민주주의’,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재명의 정치드라마!

그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시도한 경기도내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은 그가 진정한 도민의 일꾼임을 선명하게 부각시킨 정책이었다.

그동안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경기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뿌리 뽑았다. 처음 수십 년간 운영했던 불법 시설물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반발도 거셴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수많은 협박까지 당했지만 그의 노련한 행정 수완으로 협상과 설득을 통해 일방적이고 강압적 철거가 아니라 놀랍게도 상인들이 자진 철거하는 행정력을 발휘했다.

드디어 이재명의 강력한 의지와 자발적인 상인들의 협조로 2020년 7월 기준 198개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1만 1,383개의 철거를 완료했다. 이런 계곡 불법 철거물 철거는 거의 기적 같은 자진 철거 방식이어서 경기도민 스스로도 놀라워 한 성공적 정책 실행이었다.

이런 지지는 지난 4월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원이 열렸고 바로 그날 이미 후원금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원을 모금되었고 6만 3천여 명의 국민이 후원에 참여하여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은 20대 대선 경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99%가 10만원 미만의 정성 가득한 소액 후원금을 모아준 것은 바로 국민의 희망이 모아진 것이 아닌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오직 말뿐이었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저버리고 가장 불공정한 그리고 가장 비상식적인 나라로 망가뜨려 놓은 나라를 이제 진짜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기 위해 나선 이재명에게 국민들은 그저 번지르르한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몸으로 발로 뛰어 실천하는 진정한 대통령, 도구가 되기를 자원한 이재명이다.

대부분 백 년도 못사는 인생에서 이재명이 살아낸 굴곡진 삶 속에서 그를 향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상위계층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청산하지 못한 친일 반민족 세력은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 윤석열이란 괴물을 탄생시키기까지 당당하게 대한민국 상위계층의 권력 특혜를 누려왔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부터 재벌 권력과 이들의 손발이 된 언론, 종교 세력들까지 광범위하게 보수를 자처하며 권력을 유지 장악되어 왔다.

이재명이란 이런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가 아니라 작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도구, 일꾼이 되고자 한 그의 출연은 처음부터 눈엣가시였다. 그를 향한 집중포화 사법 리스트라는 굴레로 전과 4범의 범죄자로 낙인찍어 악마화시켰다.

바로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 등 4건인데 이재명 전과 4범 실체는 대부분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다가 불가피하게 생긴 전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 특수 공무 방해는 성남시립의료원설립운동 대표로서 날치기 표결 처리한 성남시의회서 시민들이 항의한 사건에서 벌어진 날치기 시의원 3명이 폭행이나 의회 집기 일부도 파손된 결과였다.

기득권 이익의 최고 대변자인 윤석열 검찰 정권의 공격은 더 집요했다.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사건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 난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727일가량의 검찰의 집중 수사와 376회의 압수수색 등 이재명 죽이기 조사가 이어졌다. 이런 직접적인 윤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나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언론의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 보도는 그 수위가 심상치 않다.

언론의 노골적인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동안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 누리고 저지르는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용납하지 않을 그의 개혁적인 행동과 실행력,

경기도지사였을 때 보여준 수십 년간 편하게 운영해 온 경기 도내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단번에 뿌리 뽑아버린 그의 결단력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 는 시작되었다(3)



최공섭
프리랜서 PD

“

6월 3일

정치 드라마는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한 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나라당 주도로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을 신설할 수 있게 된 TV CHOSUN이나 채널A, JTBC, 매일경제신문 소유인 MBN등 종합편성채널 채널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며 실제 SBS를 운영하는 태영건설 외에도 여러 중견 건설사들이 앞 다투어 지역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자본의 방송 진출 현황 시행령은 자산 규모 3조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정해 방송 진출을 금지해 왔음에도 유진기업은 YTN을 3천억을 주고 인수하였고, 호반건설은 KBC 광주방송과 서울신문, 전자신문을,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UBC 울산방송, 두진건설은 CJB 청주방송, SG건설은 강원민방G1 부영그룹은 천안일보,한라일보 등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소유하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 정부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이나 대규모 아파트나 택지 개발계획등의 발주 내용 등의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접수해 수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출입기자 등을 통해 발주기관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 협의를 벌이기도 하며, 발주 방법부터 로비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바로 대장동 사업개발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단호하고 투명한 개발계획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관행적으로 누리던 천문학적 개발계획의 이득이 대부분을 성남 시민에게 돌아간 이재명의 조치를

직접 봤고 개발업자가 가져갈 이득을 고스란히 빼앗긴 꼴이 되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의 민간개발업자들은 관행대로 이른바 '50억 클럽'인 정부나 검찰의 요직 인사인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광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등 대장동 국형 5억을 구워 삶으면 되는 줄 알았던 계획에서 도리어 지역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긴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사업 대주주인 김만배가 말한대로 '빨갱이 공산당 시장'인 것이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극우 선전보 목사나 "이재명은 간첩"이라고 한 전광훈 목사등 보수 개신교회들이 들어 내놓고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나경원이나 정재원 같은 극우 정치인을 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한의 대형교회 중 일부가 북한 공산당의 박해에 못이겨 6.25 전쟁 후 피난와서 설립되어 공산당에 대한 이념적 혐오와 편향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보수대형교회가 운영하는 개신교 사학재단 운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개신교 사학재단만 250여개이며 기독교를 표방하는 미션 스쿨이 500여개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일 경우 교회에서 설립한 한세대학교에 아내인 김성혜씨가 제4~8대 총장을 맡았고 셋째 아들 조승제씨 역시 한세대 이사이다. 대부분 사학재단의 이사장부터 사무총장, 교수등을 마음대로 임명 관리 통제하는 상태에 민주당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유력 정치인 중 실제 부산 사상구 최대유지인 동서학원이란 사학제별 아버지 장성만의 아들이 바로 정재원 국회의

당 의원이며 대통령 후보로 나온 나경원의원 역시 흥신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흥신학원의 설립자 나채성의 큰 딸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그동안 이재명의 딸과 행보를 보면 쉽게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정치인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약간의 무리한 불발이 있어도 비상계엄같은 반민주적 행위에도 도리어 그의 탄핵을 그렇게 극구 반대해온 이유는 도리어 윤석열 정권이 다루기 쉬운 미숙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정권의 어떤 간섭도 없었고 그들의 기득권은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한국교회총연합 제7대 대표회장을 지내고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윤대통령 관저로 고가의 소나무 분재 뇌물보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비상계엄 선포한 정확하게 12일 전 현 정권을 지지하는 김장환 목사의 '부흥계 하울소서'(하박국 3장 2절)라는 축복기도와 설교해준 11월 22일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왜 수 백명의 대한민국 개신교 목사들은 물러가 있는가?

'이제 그만 진실해지시다. 그만들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뱉읍시다.' 이런 국민들이 민주당의 후보경선에서 총청과 영남 경선에서 약 90% 득표율, 호남권 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88.7%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90%대로 압도적 1위로 물어 주었으니 이재명의 6월 3일 정치 드라마는 그의 말대로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한 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다.

<끝>

(20.5*24.4)cm

▲ 전라매일 2025년 5월 1일자 11면

가격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3)

“6월 3일 정치 드라마는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 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 한 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나라당 주도로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을 신설할 수 있게 된 TV CHOSUN이나 채널A, JTBC, 매일경제신문 소유인 MBN 등 종합편성채널 채널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며 실제 SBS를 운영하는 태영건설 외에도 여러 중견 건설사가 앞다투어 지역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다.

자본의 방송 진출 현행 시행령은 자산 규모 3조 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정해 방송 진출을 금지해 왔음에도 유진기업은 YTN을 3천억을 주고 인수하였고, 호반건설은 KBC광주방송과 서울신문, 전자신문을,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UBC 울산방송, 두진건설은 CJB 청주방송, SG건설은 강원민방G1, 부영그룹은 인천일보, 한라일보 등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소유하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 정부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이나 대규모 아파트나 택지 개발계획 등의 발주 내용 등의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접수해 수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출입기자 등을 통해 발주기관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 협의를 벌이기도 하며, 발주 방법부터 로비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바로 대장동 사업 개발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단호하고 투명한 개발계획을 지켜 보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관행적으로 누리던 천문화적인 개발 계획의 이득이 대부분을 성남 시민에게 돌아간 이재명의 조치를 직접 봤고 개발업자가 가져갈 이득을 고스란히 빼앗긴 꼴이 되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의 민간개발업자들은 관행대로 이른바 ‘50억 클럽’인 정부나 검찰의 요직 인사인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광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대장동 국힘 5적을 구워 삶으면 되는 줄 알았던 계획에서 도리어 성남 시민에게 5천억 원 이익을 빼앗긴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사업 대주주인 김만배가 말한 대로 ‘빨갱이 공산당 시장’인 것이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극우 손현보 목사나 “이재명은 간첩”이라고 한 전광훈 목사 등 보수 개신교회들이 드러내놓고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나경원이나 장제원 같은 극우 정치인을 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한의 대형 교회 중 일부가 북한 공산당의 박해에 못 이겨 6.25 전쟁 후 피난 와서 설립되어 공산당에 대한 이념적 혐오와 편향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보수 대형 교회가 운영하는 개신교 사학재단 운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개신교 사학재단만 250여 개이며 기독교를 표방하는 미션스쿨이 500여 개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일 경우 교회에서 설립한 한세대학교에 아내인 김성혜 씨가 제4~8대 총장을 맡았고 셋째 아들 조승제 씨 역시 한 세대 이사이다. 대부분 사학재단의 이사장부터 사무총장, 교수 등을 마음대로 임명 관리 통제하는 상태에 민주당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유력 정치인 중 실제 부산 사상구 최대 유지인 동서학원이란 사학 재벌 아버지 장성만의 아들이 바로 장제원 국회의원이며 대통령 후보로 나온 나경원 의원 역시 홍신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의 설립자 나채성의 큰 딸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그동안 이재명의 말과 행보를 보면 쉽게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정치인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약간의 무리한 불법이 있어도 비상계엄 같은 반민주적 행위에도 도리어 그의 탄핵을 그렇게 극구 반대해 온 이유는 도리어 윤석열 정권이 다루기 쉬운 미숙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 정권의 어떤 간섭도 없었고 그들의 기득권은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한국교회 총연합 제7대 대표회장을 지내고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윤 대통령 관저로 고가의 소나무 분재 뇌물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비상계엄 선포한 정확하게 12일 전 현 정권을 지지하는 김장환 목사의 ‘부흥케 하옵소서’(하박국 3장

2절)라는 축복기도와 설교해 준 11월 22일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왜 수백 명의 대한민국 개신교 목사들은 몰려가 있는가?

‘이제 그만 진실해집시다. 그만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읍시다.’ 이런 국민들이 민주당의 후보 경선에서 충청과 영남 경선에서 약 90% 득표율, 호남권 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88.7%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역 90%대로 압도적 1위로 몰아주었으니 이재명의 6월 3일 정치 드라마는 그의 말대로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 한 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다.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 는 시작되었다(4)



최공섭
프리랜서 PD

“

역시
영리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
국민이다.
이 슬기롭고
예민한
국민들이
이재명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

조희대의 대법원이 대선을 딱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로 파기환송했는데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이 나선 대선 선거 개입으로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의 초고속 결정으로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윤석열 검찰 정부가 임명한 10명이 동의했다. 이런 사법부의 선거개입에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재명재판 원심 파기환송한 미친 대법관들의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든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또 다시 5월 3일 오후 4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고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 내자고 외쳤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파기 환송한 데 분노한 촛불 시민들이 5월 금쪽같은 황금연휴에도 촛불대행진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들 탄핵에만도 100만명이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재판 자료를 한 번 들춰보지도 않고 판결문을 써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고령을 읊었다. '촛불집회 사회를 말한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고 대선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역시 "우리 국민은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법 기술자, 조희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희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 명백한 정치 재판, 대선 개입, 선거

법 위반이다. 조희대와 9명의 공범 대법관이 벌인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6만 페이지 사건 기록을 단 이를 만에 읽었다는 천재 재판관 나라들'이라고 비꼬면서 전자 문서로 읽었다고 하는데 전자 문서에 접속한 자료를 국민 앞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자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졸속 재판을 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재판 역시 지귀연 재판부가 질질 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지켜줄 걸 알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윤석열도 무죄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제2의 사법 쿠데타를 우리가 봉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는 2016년 브라질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는 일련의 과정은 보인 '사법 쿠데타'와 매우 흡사하다.

이 과정에서 판사와 수사 검사들이 주도한 합법적인 법적 절차들을 이용하여 당시 톨라 브라질 전 대통령을 체포하여 기소했으며, 유죄판결을 내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톨라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구속시켰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 후보가 바뀌고, 대통령 선거 결과도 바뀌고,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 역시 브라질과 비슷한 사법 쿠데타 전쟁에 직면해 있다. 톨라처럼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

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출마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과 내란 공범 세력의 비열한 꼼수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판기일은 대선 투표일 전 다섯 차례나 예정돼 있는 것은 사법부의 선거 방해이며 정치 개입이다. 이것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잠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은 6월 3일 대선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붙여왔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내란공범인 한덕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1시간도 안 되어 마치 선고 결과를 알았다는 듯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유기했고,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구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의자이다. 자신의 대선 출마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며 국익을 팔아먹고 파주지 협상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12.3 계엄과 내란 세력에 대해 한 겨울 엄동설한을 넘어선 '빛의 광장'의 K-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윤석열 파면을 파면시켰던 주권자 국민들이 누구보다 빠르고 명쾌하게 조희대 대법원의 음흉한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대와 도리어 대통령의 권좌에 앉으려는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영리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 국민이다. 이 슬기롭고 예민한 국민들이 이재명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계속>

(20.5x25.9)cm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4)

“역시 영리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 국민이다. 이 슬기롭고 예민한 국민들이 이재명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조희대의 대법원이 대선을 딱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로 파기 환송하였는데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이 나선 대선 선거 개입으로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만의 초고속 결정으로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윤석열 검찰 정부가 임명한 10명이 동의했다. 이런 사법부의 선거 개입에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재명 재판 원심 파기 환송한 미친 대법관들의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든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또다시 5월 3일 오후 4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열고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 내자고 외쳤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파기 환송한 데 분노한 촛불 시민들이 5월 금쪽같은 황금연휴에도 촛불 대행진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들 탄핵에만도 100만 명이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재판 자료를 한 번 들춰보지도 않고 판결문을 써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고령을 읊었다.’ 촛불집회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고 대선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공동대표는 역시 “우리 국민은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법 기술자, 조희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희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 명백한 정치 재판,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이다. 조희대와 9명의 공범 대법관이 벌인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6만 페이지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었다는 천재 재판관 나리들’이라고 비꼬면서 전자 문서로 읽었다고 하는데 전자 문서에 접속한 자료를 국민 앞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자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졸속 재판을 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재판 역시 지귀연 재판부가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적으로 지켜줄 걸 알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윤석열도 무죄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제2의 사법 쿠데타를 우리가 봉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는

2016년 브라질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는 일련의 과정은 보인 ‘사법 쿠데타’와 매우 흡사하다.

이 과정에서 판사와 수사 검사들이 주도한 합법적인 법적 절차들을 이용하여 당시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을 체포하여 기소했으며, 유죄판결을 내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룰라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구속시켰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 후보가 바뀌고, 대통령 선거 결과도 바뀌고,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 역시 브라질과 비슷한 사법 쿠데타 전쟁에 직면해 있다. 룰라처럼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과 내란 공범 세력의 비열한 꼼수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판 기일은 대선 투표일 전 다섯 차례나 예정돼 있는 것은 사법부의 선거 방해이며 정치 개입이다. 이것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은 6월 3일 대선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히려 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내란 공범인 한덕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1 시간도 안 되어 마치 선고 결과를 알았다는 듯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고,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이다. 자신의 대선 출마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며 국익을 팔아먹고 퍼주기 협상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12.3 계엄과 내란 세력에 대해 한겨울 엄동설한을 넘어서 ‘빛의 광장의 K-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윤석열 파면을 파면시켰던 주권자 국민들이 누구보다 빠르고 명쾌하게 조희대 대법원의 음흉한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대와 도리어 대통령의 권좌에 앉으려는 내란 공범 한덕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역시 영리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 국민들이 이재명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5)



최공섭
프리랜서 PD

“
뿌리깊은
기득권의
바위에 던진
이재명이란
날계란을
지키는 것은
그의 말대로
바로 힘 없고
돈 없는
국민인
우리가
그의 편에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 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시장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지난 4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 연설 중 한마디 말이다. 정치를 하기로 결심이 이뤄진 날이 바로 2004년,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민들은 성남 시립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18,595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 조례를 한 일에서 비롯된 결심이다. 만 21년 만에 이 결심이 이제 21대 대한의 위대한 미국, 환우 입은 민초의 나라 대통령 후보로서 던진 말이다.

원고도 없이 국민을 향해 부르짖는 환호와 감동의 30분 연설은 “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며 제대로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였던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라고 외쳤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식의 이재명의 도전에 지난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백년이 넘게 자리잡은 소위 권력있고 돈 있는 백까지 가진 기득권층의 바위 같이 견고한 권력이 그의 앞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세운 기득권층의 반대가 전 국민까지 당황하게 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한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

죄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하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이 나선 반대, 단지 2명의 대법관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조희대는 4월 22일 이재명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거 윤석열에게 임명받은 대법관 10명, 이에 힘없고 돈없는 일반 국민의 편은 오직 단 2명으로, 이런 10대 2라는 구조는 바로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장악해 왔던 고질적인 기득권층의 '이재명만은 안된다' 편향한 바위이다.

그러나 이런 깨기 힘든 기득권층에 맞서 성남의 한 교회 지하실에서 한 결심을 죽기로 지키고자 이재명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의연하게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월 28일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여준을 임명한 그의 결정은 바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분명한 의지를 내 보인 일명이다. 바로 윤여준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의 파평 윤씨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파평 윤씨의 종가로 충남 논산에 조선 후기 학자 명재 윤증고택이 남아 있고 이 고택은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조선의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서 전통한옥의 모델이라고 평가받은 뿌리깊은 집안이다. 특히 파평 윤씨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종학당' 있는데 이 종학당은 조선 인조 21년(1643) 윤순거가 문종의 자녀교육을 위해 건립하고 종약(宗約)을 제정하여 집안의 자녀와 문종의 내외척, 처가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세

계 유일의 사립학교(서당)이다. 종학당 건립 후 280여년 동안 운영해오다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신교육제도의 도입으로 폐쇄되었다.

무려 280여년 동안 이 파평 윤씨 사립학교를 통해 42명의 문과 급제자 31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한 세계 교육역사 상 유례를 찾기 힘든 교육 유산이 되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충청도에 올 때마다 '충청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던 바로 그 이유였고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12월 2일 자신의 뿌리라고 강조했던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하기 했지만 속칭 '짜이지 않는 자식'이 된 윤석열은 바로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는 논산의 윤증 고택이나 종학당에 한번도 방문한 적이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파평 윤씨 집안의 대표적 보수 책사인 윤여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이재명의 결정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이재명은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자!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승리”를 외치며, 국민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대로 진보와 보수, 진영과 계파를 뛰어넘는 융합로식 총망라된 선대위 출범시켰다. 문제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노무현 정부 첫 법무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경선 라이벌이었던 김경수와 김부겸 전 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총괄 선대위원장에 합류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의 혁혁한 성공이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영입한 것은 바로 2천명 의대 정원 확대를 촉발된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강력한 인물로 주목하고 영입하였을 것이다. 근대화 백년동안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기득권의 바위에 던진 이재명이란 날계란을 지키는 것은 그의 말대로 바로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인 우리가 그의 편에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선택은 바로 우리 국민 몫이다.

〈계속〉

(20.0*26.9)cm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5)

“뿌리깊은 기득권의 바위에 던진 이재명이란 날계란을 지키는 것은 그의 말대로 바로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인 우리가 그의 편에 서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 시청 앞 한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그토록 바랐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지난 4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 연설 중 한마디 말이다. 정치를 하기로 결심이 이뤄진 날이 바로 2004년, 이재명이 당시 성남 시민들은 성남 시립 공공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18,595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 조례를 한 일에서 비롯된 결심이다. 만 21년 만에 이 결심이 이제 21대 대한의 위대한 민국, 흰웃 입은 민초의 나라 대통령 후보로서 던진 말이다.

원고도 없이 국민을 향해 부르짖는 환호와 감동의 30분 연설은 “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 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며 제대로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였던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라고 외쳤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식의 이재명의 도전에 지난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백 년이 넘게 자리 잡은 소위 권력 있고 돈 있는 백까지 가진 기득권층의 바위같이 견고한 권력이 그의 앞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세운 기득권층의 반대가 전 국민까지 당황 하게 했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한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이 나선 반대, 단지 2명의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조희대는 4월 22일 이재명 사건을 갑자기 직 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 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거 윤석 열에게 임명받은 대법관 10명, 이에 힘없고 돈 없는 일반 국민의 편은 오직 단 2명으로, 이런 10대 2라는 구조는 바로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동안 장악해 왔던 고질적인 기득권층의 '이재명만은 안된다' 편협한 바위이다.

그러나 이런 깨기 힘든 기득권층에 맞서 성남의 한 교회 지하실에서 한 결심을 죽기로 지키고자 이재명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의연하게 이재명 대선후보는 4월 28일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여준을 임명한 그의 결정은 바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분명한 의지를 내보인 임명이다. 바로 윤여준은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의 파평 윤씨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파평 윤씨의 증가로 충남 논산에 조선 후기 학자 명재 윤증고택이 남아 있고 이 고택은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조선의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서 전통 한옥의 모델이라고 평가받은 뿌리 깊은 집안이다. 특히 파평 윤씨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종학당'이 있는데 이 종학당은 조선 인조 21년(1643) 윤순거가 문중의 자녀 교육을 위해 건립하고 종약(宗約)을 제정하여 집안의 자녀와 문중의 내외척, 처가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세계 유일의 사립학교(서당)이다. 종학당 건립 후 280여 년 동안 운영해 오다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신교육제도의 도입으로 폐쇄되었다.

무려 280여년 동안 이 파평 윤씨 사립학교를 통해 42명의 문과 급제자 31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한 세계 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교육 유산이 되었다.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 충청도에 올 때마다 '충청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던 바로 그 이유였고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12월 2일 자신의 뿌리라고 강조했던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하긴 했지만 속칭 '짜아지 없는 자식'이 된 윤석열은 바로 자신의 뿌리이자 고향이라는 논산의 윤증고택이나 종학당에 한 번도 방문한 적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파평 윤씨 집안의 대표적 보수 책사인 윤여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이재명의 결정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이재명은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자!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승리"를 외치며, 국민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대로 진보와 보수, 진영과 계파를 뛰어넘는 용광로식 총망라된 선대위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경선 라이벌이었던 김경수와 김부겸 전 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단에 합류했다.

특히 코로나 방역의 혁혁한 성공 이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영입한 것은 바로 2천 명 의대 정원 확대를 촉발된 의료 대란을 종식시킬 강력한 인물로 지목하고 영입하였을 것이다. 근대화 백 년 동안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기득권의 바위에 던진 이재명이란 날계란을 지키는 것은 그의 말대로 바로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인 우리가 그의 편에 서서 밀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선택은 바로 우리 국민 몫이다.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6)



최공섭
프리랜서 PD

“

최근 유명
보수 논객들조차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
주었다
‘이재명은
캠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가다’
(백낙천)

”

‘이재명은 일 잘하는 단재장입니다. 본인이 한 말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약이행률 94% 이상 실천 검증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정립합니다. 공직자에게 귀가 따갑게 청렴정신을 강조하였고 수 백번의 압수수색에도 단 한 건의 불법적인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지켜본 후보자는 이미 실력이 검증되었고 준비되어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공무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한 경기도 성남시 퇴직공무원 152명이 한 목소리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순회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89.77%를 얻은 이재명은 돌풍과 같은 인기를 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77.53%)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72.2%)의 당내 경선 득표율을 훌쩍 넘어선 수치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국민 삶과 동행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라는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그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가길 고대하게 된다.

2004년 성남 시장앞 작은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열린 결심에서 시작된 이재명의 기적은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엄청난 임무를 앞두고 있다. 바로 한 목소리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퇴직공무원 152명이 이재명 기적의 작은 마중물이다.

지난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경선도 론 후 바로 AI가 각 후보자 별 흥미로운 인물평을 내놓았다. ‘이미지는 세련되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안 보인다. 정치신인이라기 보다 잘 짜여진 기획된 인물’ 바로 AI가 한동훈 후보를 평가하는 글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격한 표현은 많은 데 구체적 정책이 없다. 말은 많지만 논리적 구조가 없고 말을 하면 항상 옛날 이야기로 돌아간다.’

홍준표에 대해선 ‘자신감은 넘치지만 타인의 말을 듣지않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한다’ 안철수는 더 정확하다. ‘중도 이미지를 이용하지만 실제 모호하고 출마는 자주하지만 그 이유가 희미하다.’ 역시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AI의 인물평이다.

오로지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기득권층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이 인생이 목표가 된 사람들 중 가까이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든 그의 과거 말과 행동, 결정만을 봐도 명확하게 그들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어 유죄로 파기환송을 결정을 한 이유나 배경은 명확해 보인다. 출생지가 바로 현 경상북도 경주시이고 2014년 3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은혜와 의리로 대법원에서 이제는 무죄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조차 역시 무죄 판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강요 혐의 조차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에

게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을 임명 받은 은혜를 갖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의 무죄 공직선거법조차 거침없이 유죄로 판결, 파기 환송한 당연한 이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명 보수 논객들조차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 주었다.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가다 (백낙천) ‘지금까지 살아남아 거대 야당의 황제 대표가 된 것은 김대중도 못한 일이다. 보수진영이 씩은 악마 프레임에만 갇혀 있지 말라’라고 월간조선의 최보식은 말했다.

특히 정규제TV에서도 이재명을 한마디 거들어 주었다. ‘이재명이 전과 4범 중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당시 검사를 사칭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KBS 최철호PD다. KBS PD이는 무죄가 되었지만 그 옆에서 거들어준 이재명이 유죄가 되는 영터리가 어디 있어요. 5건의 재판도 모두 검찰정권이 만들어낸 기소의 횡포다.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없애면 소위 검찰독재 수법에 걸려든 재판 5건을 모두 경멸합니다.’

이제라도 이재명의 분노를 가감 없이 평가하고 보도하는 보수 논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의 기적은 더욱 더 가깝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늘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은 진짜 진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이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표준이 될 이재명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바뀔 6월 3일, 바로 이재명과 함께 우리 손에 달렸다.

<글>

(20.6*23.8)cm

▲ 전라매일 2025년 5월 16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6)

“최근 유명 보수 논객들조차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 주었다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가다’(백낙천)”

‘이재명은 일 잘하는 단체장입니다. 본인이 한 말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을 94% 이상 실천 검증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합니다. 공직자에게 귀가 따갑게 청렴 정신을 강조하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에도 단 한 건의 불법적인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지켜본 후보자는 이미 실력이 검증되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무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한 경기도 성남시 퇴직 공무원 152명이 한목소리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순회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89.77%를 얻은 이재명은 돌풍과 같은 인기를 끌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77.53%)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72.2%)의 당내 경선 득표율을 훌쩍 넘어선 수치로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 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라는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그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

가길 고대하게 된다.

2004년 성남 시청 앞 작은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올린 결심에서 시작된 이재명의 기적은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엄중한 임무를 앞두고 있다. 바로 한목소리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퇴직 공무원 152명이 이재명 기적의 작은 마중물이다.

지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 후 바로 AI가 각 후보자별 흥미로운 인물평을 내놓았다. ‘이미지는 세련되었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안 보인다. 정치신인이라기보다 잘 짜여진 기획된 인물’ 바로 AI가 한동훈 후보를 평가하는 글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격한 표현은 많은데 구체적 정책이 없다. 말은 많지만 논리적 구조가 없고 말을 하면 항상 옛날이야기로 돌아간다.’

홍준표에 대해선 ‘자신감은 넘치지만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한다’ 안철수는 더 정확하다. ‘중도 이미지를 이용하지만 실제 모호하고 출마는 자주 하지만 그 이유가 희미하다.’ 역시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AI의 인물평이다.

오로지 ‘이재명만은 안된다’는 기득권층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 중 기꺼이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든 그의 과거 말과 행

동, 결정만을 봐도 명확하게 그들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어 유죄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나 배경은 명확해 보인다. 출생지가 바로 현 경상북도 경주시 이고 2014년 3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은혜와 의리로 대법원에서 이제는 무죄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조차 역시 무죄 판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조차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제 17대 대법원장을 임명받은 은혜를 갚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의 무죄 공직선거법조차 거침없이 유죄로 판결, 파기 환송한 당연한 이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명 보수 논객들조차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 주었다. '이재명은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가다(백낙천)' '지금까지 살아남아 거대 야당의 황제 대표가 된 것은 김대중도 못 한 일이다. 보수 진영이 씌운 악마 프레임에만 갇혀 있지 말라'라고 월간조선의 최보식은 말했다.

특히 정규재TV에서도 이재명을 한마디 거들고 주었다. '이재명이 전과 4범 중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당시 검사를 사칭한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KBS 최철

호 PD다. KBS PD는 무죄가 되었지만 그 옆에서 거들어 준 이재명이 유죄가 되는 영터리가 어디 있어요. 5건의 재판도 모두 검찰 정권이 만들어낸 기소의 횡포다.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얹어맨 소위 검찰 독재수법에 걸려든 재판 5건을 모두 경멸합니다.'

이제라도 이재명의 본모습을 가감 없이 평가 하고 보도하는 보수 논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의 기적은 더욱더 가깝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늘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은 진짜 진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이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표준이 될 이재명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바뀔 6월 3일, 바로 이재명과 함께 우리 손에 달렸다.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7)



최공섭
프리랜서 PD

“

500년 조선사회를

뿌리채 흔든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메시지는

오늘 이재명의

진짜 민주주의

혁명 정부를

꿈꾸며

K-민주주의

기적을 다시

이뤄내고 있다

”

‘조백숙이 누군 줄 알아요, 정음 동학혁명때 바로 탐관오리 조병갑의 손녀딸이랑 겐요’ 우연히 탄 택시의 운전기사가 들려준 말인데, 자신이 바로 절대권력을 가진 왕인줄 착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어떻게 전라도 국회의원인 조백숙이 윤석열 편에 설 수 있는나라는 원망섞인 비난이어서 검색해보니 조병갑의 진짜 증손녀딸은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바 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였다. 마침 지난 5월 11일 정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을 기리는 특별전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가 열리고 있다. 12·3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 기간중에 열린 전봉준 순국 기념 특별전은 더욱 더 큰 의미로 혁명은 결코 1895년에 멈추지 않았으며, 지금도 수많은 ‘전봉준’들이 불에 맞서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 독재정권 맞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민주주의의 결실이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 친일파 조병갑의 후손들이 아직도 땡땡거리며 홍보하는 오늘의 현실이 아직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득권의 현주소다. 130년전 전봉준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가치를 세운 동학혁명을 일으켰다. 탐관오리 조병갑이 모친상을 당한 후 부조금으로 2천 냥을 거둬오라는 요구에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대표로 나서 항의하자 도리어 조병갑에게 곤장을 맞아 죽는 역울한 일이 벌어지고 마침내 1894년 농민 천여 명과 함께 혁명의 기치를 들었고 양반 착취에 저항한 최초의 시도로 관아를 습격해 빼앗긴 곡식을 되찾고 사람이 바로 세상의 중심임을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조선 강도를 피로 물들인 이 동학농민항쟁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조선의 구태의연한 봉건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의 신새벽을 열

어졌던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지원으로 받은 막강한 개틀링기관총 앞에서 2만 5천명의 무고한 농민군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아직까지도 참혹하게 희생된 농민군들의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민원의 혁명이다.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조선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된 지 4일 후인 3월 29일 이른바 처음 도입된 근대 사법제도가 출범한 이후 내려진 첫 사형선고야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과 동학농민 지도자 손화중, 최경선, 성두한, 김덕명 등에 대한 교수형 선고였다.

그러나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은 농민들이 미리 불기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고, 책임을 물어 잠시 유배되었지만 청일전쟁 직전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이 설립한 친일 내각에 의해 석방됐고, 도리어 고종으로부터 중용받아 1898년에는 고등재판소 판사가 되어 자신에 의해 야기된 동학 혁명의 2대 접주 최시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역사적 불공정 재판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고종과 친일파 양쪽에게 총애받으며 호의호식하다가 천수를 누리고 생을 마감했다. 그의 친손녀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명예교수는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되기도 했고, 2006년 《월간조선》 11월호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촉발시킨 탐관오리이자 친일파 집안인 조병갑 집안의 손녀라는 사실이 보도되자 도리어 조기숙은 ‘증조부에 대한 사실이 오류이며 증조부는 역사의 희생양일 뿐이다’라는 증조부 조병갑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대를 옹호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며 거꾸로 비판자들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반성은 커녕 어떤

역사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이 지위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다. 이런 현실에서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전봉준 장군의 딸 전옥례는 15세의 어린 나이로 화를 피하여 진안군 마이산으로 들어가 김옥련으로 이름을 고치고, 어렵게 숨어 살다가 동학 농민 운동이 민란에서 농민운동으로 승격된 1970년에야 비로소 그 동안 전봉준의 딸임을 숨기고 살아왔던 큰 기구한 사실을 밝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뀐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5백년 조선사회를 뿌리채 뒤 흔들어 놓은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는 유관순의 3·1운동과 안중근의 만주 하얼빈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민주화 운동을 거쳐 오는 이재명의 진짜 민주주의 혁명 정부를 꿈꾸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전봉준의 녹두밭 대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를 부르며 푸르른 응원봉을 흔드는 K-민주주의의 기적을 다시 이뤄내고 있다.

‘정치가 뭘니까? 국민을 괴롭히고 지배하라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절대권력을 가진 통치자입니까? 대한민국의 공복, 국민의 머슴 중에 제일 큰 책임을 지닌 머슴, 옛날로 하면 마름아닙니까? 마름의 최대 덕목은 주인인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 충직한 마름, 유능한 머슴이 되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인 인내천은 이재명의 충직하고 유능한 마름, 머슴으로 변하였지만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는 분명한 고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는 이재명의 약속을 오늘 다시 바라보게 된다.

(20.7*26.9)cm

▲ 전라매일 2025년 5월 22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7)

“500년 조선 사회를 뿌리채 흔든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는 오늘 이재명의 진짜 민주주의 혁명 정부를 꿈꾸며 K-민주주의 기적을 다시 이뤄내고 있다”

‘조배숙이 누군 줄 알아요, 정읍 동학혁명 때 바로 탐관오리 조병갑의 손녀딸이랑게요’ 우연히 탄 택시의 운전기사가 들려준 말인데, 자신이 바로 절대권력을 가진 왕인 줄 착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어떻게 전라도 국회의원이 조배숙이 윤석열 편에 설 수 있느냐는 원망 섞인 비난이어서 검색해 보니 조병갑의 진짜 증손녀딸은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바 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였다. 마침 지난 5월 11일 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을 기리는 특별전 ‘전봉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다’가 열리고 있다. 12·3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 기간에 열린 전봉준 순국 기념 특별전은 더욱더 큰 의미로 ‘혁명은 결코 1895년에 멈추지 않았으며, 지금도 수많은 ‘전봉준’들이 불의에 맞서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 독재정권 맞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민주주의의 결실이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 친일파 조병갑의 후손들이 아직도 평평거리며 활보하는 오늘의 현실이 아직 청

산하지 못한 과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득권의 현주소다. 130년 전 전봉준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가치를 세운 동학혁명을 일으켰다. 탐관오리 조병갑이 모친상을 당한 후 부조금으로 2천냥을 거둬오라는 요구에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대표로 나서 항의하자 도리어 조병갑에게 곤장을 맞아 죽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마침내 1894년 농민 천여 명과 함께 혁명의 가치를 들었고 양반 착취에 저항한 최초의 시도로 관아를 습격해 빼앗긴 곡식을 되찾고 사람이 바로 세상의 중심임을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인 이 동학농민 항쟁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조선의 구태의연한 봉건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의 신세력을 열어젖힌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지원으로 받은 막강한 개틀링 기관총 앞에서 2만 5천 명의 무고한 농민군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아직 까지도 참혹하게 희생된 농민군들의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다.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조선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된 지 4일 후인 3월 29일 이른바 처음 도입된 근대 사법제도가 출범한 이후 내려진 첫 사형 선고가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과 동학농민 지도자 손화중, 최경선, 성두한, 김덕명 등에 대한 교수형 선고였다.

그러나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은 농민들이 미리 봉기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고, 책임을 물어 잠시 유배되었지만 청일전쟁 직전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이 설립한 친일 내각에 의해 석방됐고, 도리어 고종으로부터 중용받아 1898년에는 고등재판소 판사가 되어 자신에 의해 야기된 동학혁명의 2대 접주 최시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역사적 불공정 재판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고종과 친일파 양쪽에게 총애받으며 호의호식하다가 천수를 누리고 생을 마감했다. 그의 친손녀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학부 명예교수는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되기도 했고, 2006년 《월간조선》 11월호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촉발시킨 탐관오리이자 친일파 집안인 조병갑 집안의 손녀라는 사실이 보도되자 도리어 조기숙은 '증조부에 대한 사실이 오류이며 증조부는 역사의 희생양일 뿐이다.'라는 증조부 조병갑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대를 옹호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며 거꾸로 비판자들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반성은 커녕 어떤 역사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이 지위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다. 이런 현실에서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전봉준 장군의 딸 전옥례는 15세의 어린 나이로 화를 피하여 진안군 마이산으로 들어가 김옥련으로 이름을 고치고, 어렵게 숨어 살다가 동학농민운동이 민란에서 농민운동으로 승격된 1970년에야 비로소 그동안 전봉준의 딸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기구한 사실을 밝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이다.

그러나 5백 년 조선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은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는 유관순의 3·1운동과 안중근의 만주 하얼빈의 역사를 만들어내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민주화운동을 거쳐 오늘 이재명의 진짜 민주주의 혁명 정부를 꿈꾸며,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전봉준의 녹두꽃 대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를 부르며 푸르른 응원봉을 흔드는 K-민주주의의 기적을 다시 이뤄내고 있다.

'정치가 뭘니까? 국민을 괴롭히고 지배 하라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잡니까? 대한민국의 공복, 국민의 머슴 중에 제일 큰 책임을 지닌 머슴, 옛말로 하면 마름 아닙니까? 마름의 최대 덕목은 주인인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 충직한 마름, 유능한 머슴이 되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전봉준의 사람이 곧 하늘인 인내천은 이재명의 충직하고 유능한 마름. 머슴으로 변하였지만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는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는 이재명의 약속을 오늘 다시 바라보게 된다.

경고결정문

1. 제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본문: 본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칼럼을 연속 게재하여(2025년 4월 29일자 11면 기적같은 이재명의 정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1)등 7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2025년 6월 10일

(20.6*10.4)cm

▲ 전라매일 2025년 6월 10일자 11면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23

언론사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

심의대상기사

1. 내외뉴스통신 2025년 4월 27일자 정치면 「[전문][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하의 기사
2.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1일자 정치면 「[전문][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제하의 기사
3.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1일자 정치면 「[전문][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제하의 기사
4.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3일자 정치면 「[전문][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제하의 기사
5.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4일자 정치면 「[성명서]“1000만 노인의 염원, 김문수 후보가 이끕니다!”」 제하의 기사
6.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 제하의 칼럼
7.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전문][김문수의 눈물]」 제하의 기사
8.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7일자 정치면 「[전문][대국민 호소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외뉴스통신 홈페이지(<https://www.nbnnews.co.kr>) 정치-정치일반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2] 경고결정문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을 고정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경고결정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 되도록 한다. 단,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성명서 등 홍보자료를 그대로 게재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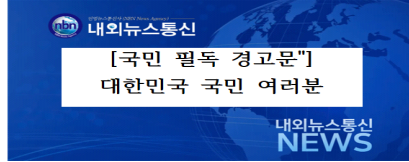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본문 : 본 뉴스통신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성명서 등 홍보 자료를 그대로 게재(2025년 4월 27일자 정치면 「전문」[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등 7건)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2025년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편집국 | ⓒ 승인 2025.04.27 10:55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바탕으로 이재명의 본심과 국정운영 철학을 분석한 결과,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임이 명백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이재명의 발언과 그 위험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경제]

대기업에 리코법 적용해 재산 몰수 추진

법인세 인상, 재벌 해체 선언

지역화폐 의무화, 완전 추가 건설 반대

무역적자 상황에서도 정부 비판만 반복

▶ 평가: 반기업-반시장적 성향, 산업 기반 붕괴 위험.

[2. 복지]

전국민 기본소득, 토지배당 주장

데이터세, AI세, 국토보유세 도입 검토

"100만원 주면 경기가 살아난다" 발언

▶ 평가: 재정 파탄 유발, 무책임한 포퓰리즘.

[3. 노동]

"한상균을 노동부장관 시키자", "노동자정권 만들어야"

파업 손해배상 제한 주장

경찰 부상에도 시위대 편들기

▶ 평가: 법질서 파괴, 사회 혼란 유발, 극좌 성향.

[4. 법치]

"대선은 부정선거", "전산개표 조작 가능" 주장

6.25 전쟁은 총돌 누적이야 예국

음식점 총량제 주장

▶ 평가: 헌정질서 부정, 법치 붕괴 우려.

[5. 외교]

"미군 철수 대비해야", "사드는 무용지물"

"중국 자국 말자", "일본은 적성국"

▶ 평가: 동맹 파괴, 외교 고립 초래.

[6. 안보]

"미군은 정령군", "사드보다 보일러" 주장

김일성-김정일 긍정 발언

북한 포격 사건 회색

▶ 평가: 국가 안보 무시, 국민 안전 위협.

[7. 먹말]

이승만 대통령을 "쓰레기"로 모욕

"박근혜는 유애 앞으로 보내자" 먹말

기자 질문 끊고 모욕 발언 반복

▶ 평가: 국가 원수 품격 상실, 국민 통합 불가.

[8. 정당관]

"국힘은 무늬정당", "우리 지지자는 고학력"

정치보복은 "올래 해야" 발언

▶ 평가: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 편 가르기, 민주주의 파괴.

[9. 재능 대응]

세월호 국정원 소유 주장

환풍기 사고 실소, 이천화재 먹방 논란

▶ 평가: 국민 생명 경시, 위기대응 리더십 부재.

[10. 언론관]

"TV조선 폐간시키겠다", "언론은 징벌해야 한다"

카톡 등 통제 발언

▶ 평가: 언론 자유 침해, 전체주의적 통제 성향.

최종 종합 평가:

국가관: 심각한 결함. (반헌법적-반국가적 발언 다수)

정책 능력: 비현실적 포퓰리즘, (재정-경제 붕괴 우려)

안보관: 심각한 안보 불감증. (국민 생명 위협)

도덕성: 국민 통합 불가. (품격-도덕성 결여)

언론관: 전체주의적 경향.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결론: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절대 부적격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2025년 4월 27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대표

편집국 | nnews1@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외뉴스통신 2025년 4월 27일자 정치면

[전문][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바탕으로 이재명의 본심과 국정운영 철학을 분석한 결과, 그는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임이 명백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이재명의 발언과 그 위험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경제】

대기업에 리코법 적용해 재산 몰수 추진
법인세 인상, 재벌 해체 선언

지역화폐 의무화, 원전 추가 건설 반대
무역적자 상황에서도 정부 비판만 반복

▶ 평가: 반기업·반시장적 성향. 산업 기반 붕괴 위험.

【2. 복지】

전 국민 기본소득, 토지배당 주장
데이터세, AI세, 국토보유세 도입 검토

“100만원 주면 경기가 살아난다” 망언

▶ 평가: 재정 파탄 유발, 무책임한 포퓰리즘.

【3. 노동】

“한상균을 노동부 장관 시키자”, “노동자 정권 만들어야”

파업 손해배상 제한 주장

경찰 부상에도 시위대 편들기

▶ 평가: 법질서 파괴, 사회 혼란 유발. 극좌 성향.

【4. 법치】

“대선은 부정선거”, “전산 개표 조작 가능” 주장
6.25 전쟁은 충돌 누적이라 왜곡

음식점 총량제 주장

▶ 평가: 헌정질서 부정, 법치 붕괴 우려.

【5. 외교】

“미군 철수 대비해야”, “사드는 무용지물”
“중국 자극 말자”, “일본은 적성국”

▶ 평가: 동맹 파괴, 외교 고립 초래.

【6. 안보】

“미군은 점령군”, “사드보다 보일러” 주장
김일성·김정일 긍정 발언

북한 포격 사건 희석

▶ 평가: 국가 안보 무시, 국민 안전 위협.

【7. 막말】

이승만 대통령을 “쓰레기”로 모욕

“박근혜는 유해 옆으로 보내자” 막말

기자 질문 끊고 모욕 발언 반복

▶ 평가: 국가 원수 폄하 상실. 국민 통합 불가.

【8. 정당관】

“국힘은 무뇌정당”, “우리 지지자는 고학력”
정치보복은 “몰래 해야” 망언

▶ 평가: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 편 가르기.
민주주의 파괴.

여러분,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2025년 4월 27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대표

【9. 재난 대응】

세월호 국정원 소유 주장

환풍기 사고 실소, 이천 화재 먹방 논란

▶ 평가: 국민 생명 경시. 위기 대응 리더십 부재.

【10. 언론관】

“TV조선 폐간시키겠다”, “언론은 징벌해야 한다”
카톡 등 통제 발언

▶ 평가: 언론 자유 침해, 전체주의적 통제 성향.

최종 종합 평가:

국가관: 심각한 결함. (반헌법적·반국가적 발언 다수)

정책 능력: 비현실적 포퓰리즘. (재정·경제 붕괴 우려)

안보관: 심각한 안보 불감증. (국민 생명 위협)

도덕성: 국민 통합 불가. (품격·도덕성 결여)

언론관: 전체주의적 경향.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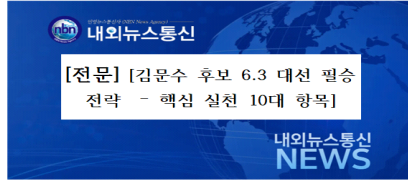
결론: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절대 부적격입니다.

[전문] [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 편집국 | ⓒ 승인 2025.05.11 14:57



[전문] [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1. 부정·불법선거 원천 차단 및 최고형 경고 선언

중앙선관위 및 투표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세력과 부정선거 시도자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으로 간주, 당선 즉시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형법에 따라 최고형을 선고하겠다"고 공식 경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해 '공정선거 수호자' 이미지를 확립.

2. 사법부에 공정 재판 촉구 및 위반 시 엄정 대응 선언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집행"을 촉구. 특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지연에 대해 "정의 유예는 정의의 파괴"라며 강력 경고. 김문수 측이 이재명의 협박과 사법부 길들이기에 맞서 법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청.

3. 국민의힘 당내 분열 조기 수습 및 통합 리더십 표방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 "당원 모두 하나의 깃발 아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전 후보군 및 계파 대표자들과 공개적 화합 퍼포먼스, 공동 선언 등을 통해 국민적 통합 이미지 연출. 당 내 상처를 치유하고 유능한 통합 리더로 인식 전환.

4. 서울고법 재판 지연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서울고법의 6.18 형량 선고 연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규탄. "국민은 범죄자의 출마를 용납하지 않는다. 법원은 책임 있게 결단하라"고 강력 메시지 전달.

5. 민생·안보·외교 핵심정책 조기 발표

'김문수는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위해 즉각 실행 가능한 ①서민가계 보호 ②물가안정 ③한미동맹 ④북중 견제전략 ⑤청년일자리 대책 등 국정 핵심 정책 5대 패키지를 대국민 발표.

6. 이재명 후보 자격정치 가치본 신칭의 조속한 제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5.1), 서울고법 형량 선고 예정(6.18)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파선거권 실질 상실을 주장하며 가치본 신칭 제기. 가치본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거 공정성과 국민 판단 보호 차원의 법률적 정공법.

7. '기호 2번은 자유대한민국' 메시지 프레임화

민주당(기호 1번)과 이재명의 범죄 전력을 엮어 "기호 1번은 범죄, 기호 2번은 헌법"이라는 프레임 고착. "기호 2번 김문수 = 자유와 정의의 표상"이라는 상징적 언어 반복 주입.

8. 유권자 참여 유도 - '기권은 범죄를 돕는 일' 프레임

무당층·중도층 대상으로 "무관심은 범죄자의 당선을 돕는 것"이라는 책임 프레임 전개.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메시지로 감성·도덕성 공략.

9. 5.20~6.3일 집중 메시지 및 여론전 돌입

6.18 선고 전에 있을 선거일을 겨냥해 "범죄자 후보에게 표를 주면 나중에 다시 선거 치르게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집중 배포.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길거리 현수막을 통한 집중 홍보 돌입.

10. 김문수 다류 콘텐츠 + 국민 서명운동 병행

김문수의 노동자 출신, 반독재운동, 무소유 철학을 담은 진정성 다류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동시에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는 국민 서명운동과 자유수호 국민 선언 캠페인으로 전국적 여론전 유도.

2025년 5월 11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편집국 nbnnews1@naver.com

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1일자 정치면

**[전원]김문수 후보 6.3 대선 필승 전략 -
핵심 실천 10대 항목**

1. 부정·불법 선거 원천 차단 및 최고형 경고 선언

중앙선관위 및 투표 시스템을 악용한 조작 세력과 부정선거 시도자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범으로 간주, 당선 즉시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형법에 따라 최고형을 선고하겠다”고 공식 경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해 ‘공정선거 수호자’ 이미지를 확립.

2. 사법부에 공정 재판 촉구 및 위반 시 엄정 대응 선언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과 집행”을 촉구.

특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지연에 대해 “정의 유예는 정의의 파괴”라며 강력 경고.

김문수 측이 이재명의 헐박과 사법부 길들이기에 맞서 법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청.

3. 국민의힘 당내 분열 조기 수습 및 통합 리더십 표방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 “당원 모두 하나의 깃발 아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전 후보군 및 계파 대표자들과 공개적 화합 퍼포먼스, 공동 선언 등을 통해 국민적 통합 이미지 연출.

당내 상처를 치유하고 '유능한 통합 리더'로

인식 전환.

4. 서울고법 재판 지연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서울고법의 6.18 형량 선고 연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규탄.

“국민은 범죄자의 출마를 용납하지 않는다. 법원은 책임 있게 결단하라”고 강력 메시지 전달.

5. 민생·안보·외교 핵심 정책 조기 발표

‘김문수는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위해 즉각 실행 가능한 ①서민 가게 보호 ②물가 안정 ③한미동맹 ④북중 견제 전략 ⑤청년 일자리 대책 등 국정 핵심 정책 5대 패키지를 대국민 발표.

6. 이재명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제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5.1), 서울고법 형량 선고 예정(6.18) 근거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실질 상실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제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거 공정성과 국민 판단 보호 차원의 법률적 정공법.

7. ‘기호 2번은 자유대한민국’ 메시지 프레임화
민주당(기호 1번)과 이재명의 범죄 전력을 엮어 “기호 1번은 범죄, 기호 2번은 헌법”이라는 프레임 고착.

“기호 2번 김문수 = 자유와 정의의 표상”이라는 상징적 언어 반복 주입.

8. 유권자 참여 유도 - ‘기권은 범죄를 돕는 일’ 프레임

무당층·중도층 대상으로 “무관심은 범죄자의 당선을 돕는 것”이라는 책임 프레임 전개.

“당신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메시지로 감성·도덕심 공략.

9. 5.20~6.3일 집중 메시지 및 여론전 돌입 6.18 선고 전에 있을 선거일을 겨냥해 “범죄자 후보에게 표를 주면 나중에 다시 선거 치르게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집중 배포.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길거리 현수막을 통한 집중 홍보 돌입.

10. 김문수 다큐 콘텐츠 + 국민 서명운동 병행 김문수의 노동자 출신, 반독재운동, 무소유 철학을 담은 진정성 다큐 콘텐츠 제작 및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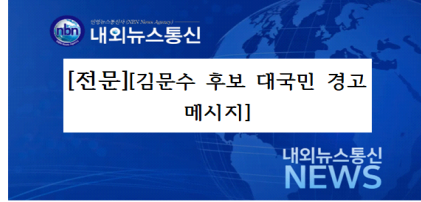
동시에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는 국민 서명운동과 자유 수호 국민 선언 캠페인으로 전국적 여론전 유도.

2025년 5월 11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전문]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A 편집국 | © 승인 2025.05.11 23:18



[전문]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이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 수치를 조작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흔들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정권 탈취 공작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여론조사 및 언론 보도 조작에 가담한 기관과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겠습니다.

허위 수치 조작, 허위 사실 유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왜곡 프레임 등 더 이상 언론 자유나 조사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면책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친 여론조작 및 가짜뉴스 행위는 ‘선거 범죄’로 간주하여, 당선 이후 즉시 특별감찰과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관련자들은 패가망신할 정도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대선은 정의와 진실을 선택하느냐, 조작과 거짓을 용인하느냐의 기로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민심은 조작될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론조사 왜곡과 언론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김문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조작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겠습니다.

nbnnews1@naver.com

 편집국 nbnnews1@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1일자 정치면

[전원]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작된 여론 조사와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이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 수치를 조작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흔들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정권 탈취 공작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여론조사 및 언론 보도 조작에 가담한 기관과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허위 수치 조작, 허위 사실 유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왜곡 프레임 등은 더 이상 언론 자유나 조사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면책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친 여론조작 및 가짜뉴스 행위는 ‘선거 범죄’로 간주하여, 당선 이후 즉시 특별감찰과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관련자들은 패가망신할 정도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3. 이번 대선은 정의와 진실을 선택하느냐, 조작과 거짓을 용인하느냐의 기로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민심은 조작될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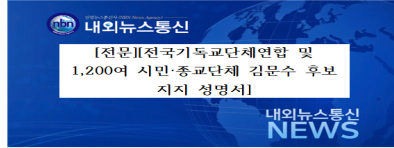
4. 중앙선관위와 수사기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론조사 왜곡과 언론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김문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조작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겠습니다.

[전문]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주 편집국 | 2025.05.13 19:12



[전문]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자유민주주의와 신앙, 가정과 윤리를 지킬 유일한 선택 -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의 선택을 넘어 문명의 방향과 가치의 존속을 가르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국기독교단체연합과 1,200여 개 시민 및 종교 단체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지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신앙 양심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1.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킬 유일한 지도자

김문수 후보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국회와 경기도정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좌익에서 출발했으나, 자유의 가치가 진정한 평등과 분배의 출발점을 깨닫고 보수로 전향한 역사 의식과 결단력 있는 인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교회도 설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삼권분립 원칙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 그것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2.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낼 유일한 후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가정을 붕괴시키는 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악법들을 강력히 반대하며, 실제 정치 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교회와 설 수 있는 나라,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청렴하고 정직한 삶, 서민과 약자 편에 서온 진심의 사람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 남은 선거자금을 전액 당에 헌납하며 공직자의 청렴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상성반도체 평택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GTX사업 구상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행정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한센인, 탈북민, 노동자들과 늘 함께 해왔으며, 국회에선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제정하고 탈북민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지도자, 그것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4. 우리는 이렇게 믿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신앙과 자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지지 선언 단체 및 주요 인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회장 박동호 목사)

오산리 금식기도원 전 원장 권경환 목사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대표 이훈 목사)

진리수호국가기독교연합 (상임회장 노요한 목사, 공동대표 조규현 목사)

정의자유실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송용석 목사)

법국민보수대연합 (사무총장 장한목 목사)

대한민국기독교연인연합회

교회생명지키기연대

바른신앙수호목회자회

기독교청년나라지킴이연대

한국기독교기성회복연합

자유대한기독교청년연합

통일선교연대

달북민신앙공동체연대

전국목회차사모기도연합

다음세대기독교운동본부

한국기독교문화선교회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전국교회선교협력연대

기타 전국 1,200여 시민 및 종교단체 일동

우리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중립을 논할 때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과 헌법적 양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김문수 후보를 위해 기도하며 지지의 마음을 모읍시다.

2025년 5월 13일

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일동

nbnnews1@naver.com

편집국 nbnnews1@naver.com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3일자 정치면

[전문] [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자유민주주의와 신앙, 가정과 윤리를 지킬 유일한 선택 -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의 선택을 넘어 문명의 방향과 가치의 존속을 가르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국기독교단체연합과 1,200여개 시민 및 종교단체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보로 공식 지지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신앙 양심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1.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킬 유일한 지도자

김문수 후보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국회와 경기도정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좌익에서 출발했으나, 자유의 가치가 진정한 평등과 분배의 출발점임을 깨닫고 보수로 전향한 역사의식과 결단력 있는 인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교회도 설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삼권분립 원칙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 그것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2.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낼 유일한 후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가정을 붕괴시키는 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악법들을 강력히 반대하며, 실제 정치 현장에서 일관되게 저지해 온 인물입니다.

교회가 설 수 있는 나라, 신앙이 자유로운 나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청렴하고 정직한 삶, 서민과 약자 편에 서은 진심의 사람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 남은 선거 자금을 전액 당에 헌납하며 공직자의 청렴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삼성반도체 평택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GTX 사업 구상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행정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한센인, 탈북민, 노동자들과 늘 함께 해왔으며, 국회에선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제정하고 탈북민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지도자, 그것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4. 우리는 이렇게 믿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신앙과 자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와 인사들과 함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지지 선언 단체 및 주요 인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회장 박동호 목사)

오산리 금식기도원 전 원장 권경환 목사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대표 이훈 목사)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상임회장 노요한

목사, 공동대표 조규현 목사)

정의자유실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송용석 목사)

범국민보수대연합 (사무총장 장한묵 목사)

대한민국기독언론인연합회

교회생명지키기연대

바른신앙수호목회자회

기독청년나라지킴이연대

한국기독교가정회복연합

자유대한기독청년연합

통일선교연대

탈북민신앙공동체연대

전국목회자사모기도연합

다음세대기독교운동본부

한국기독문화선교회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전국교회선교협력연대

기타 전국 1,200여 시민 및 종교단체 일동

우리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중립을 논할 때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과 헌법적 양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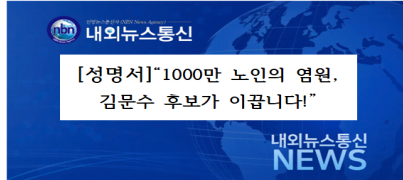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김문수 후보를 위해 기도하며 지지의 마음을 모읍시다.

2025년 5월 13일

전국기독교단체연합 및
1,200여 시민·종교단체 일동

[성명서]"1000만 노인의 염원, 김문수 후보가 이끁니다!"

A 편집국 | © 승인 2025.05.14 10:08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 [전문] 성명서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

지금 대한민국은 1000만 고령 인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시니어 세대가 이제는 돌봄과 존중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주거·돌봄 서비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챙겨주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제 시니어 세대가 직접 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려 합니다.

우리는 '노인을 위한 나라'를 실현할 준비가 된 단 한 명의 후보,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복지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는 GTX, 판교테크노밸리,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지하며 일자리와 미래를 함께 열어왔습니다.

그는 공직생활 내내 단 한 점의 부정 없이 청렴하게 일했고, 국민 세금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지도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복지의 본질을 아는 정치인입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노인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김문수와 함께 가능합니다!"

"1000만 시니어의 마음을 담아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가

노인기초소득 40만 원 인상,

70세 이상 고령층 무상의료 적용,

전국 시니어 복지센터 확대 설치 등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노인복지의 획기적 전환을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경륜과 도덕성, 능력과 청렴함을 모두 갖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시니어 세대가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 시니어평생복지위원회 일동
(공동위원장 김일운, 김의재, 김호일, 문희주, 박희도, 송영선, 오제세, 유용태, 이규택, 이남식, 이춘식, 장준근, 조만준, 최태현, 홍수환, 황우여 외 다수)

nbnews1@naver.com

편집국 nbnews1@naver.com

저작권과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4일자 정치면

[성명서] “1000만 노인의 염원, 김문수 후보가 이룹니다!”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
지금 대한민국은 1000만 고령 인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시니어 세대가 이제는 돌봄과 존중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주거·돌봄 서비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챙겨주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제 시니어 세대가 직접 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려 합니다.

우리는 ‘노인을 위한 나라’를 실현할 준비가 된 단 한 명의 후보, 김문수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복지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는 GTX, 판교테크노밸리,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하며 일자리와 미래를 함께 열어왔습니다.

그는 공직 생활 내내 단 한 점의 부정 없이 청렴하게 일했고, 국민 세금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지도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복지의 본질을 아는 정치인입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노인 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김문수와 함께 가능합니다!”

“1000만 시니어의 마음을 담아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선택합시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가

노인기초소득 40만 원 인상,

70세 이상 고령층 무상의료 적용,

전국 시니어 복지센터 확대 설치 등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노인복지의 획기적 전환을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경륜과 도덕성, 능력과 청렴함을 모두 갖춘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시니어 세대가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
시니어평생복지위원회 일동
(공동위원장 김일윤, 김의재, 김호일, 문희주,
박희도, 송영선, 오제세, 유용태, 이규택,
이남식, 이춘식, 장훈근, 조만준, 최태현,
홍수환, 황우여 외 다수)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

▲ 편집국 | © 승인 2025.05.16 10:54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우파들은昨속의 국내 상황을 자유민주주의대 중북좌파의 이념갈등으로 인한 좌우 대결로 정의 내립니다. “이념이 밥 먹여준다?” 중북좌파 인기영합주의 이재명의 단골 메뉴입니다. 밥만 먹으면 되지 왜 꼭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느냐는 말로 돌립니다. 중북좌파/주사파가 집권하면 어쨌든 밥 먹여준다.

그런데 이념이 밥 먹여줍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최초로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삽니다. 수치가 말해줍니다. 중국의 국민 개인 소득이 13,000불가량되고 우리 국민 개인 소득은 37,000불가량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국민 개인 GDP 순위로 보면

한국 32위 중국 69위입니다.

아시아에서 유교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모두 6개국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북한입니다. 이 나라들의 국민 개인 GDP 순위로 보면 한국 32위 대만 33위 일본 34위 중국 69위 베트남 118위 북한 180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 대만 일본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 베트남 북한은 모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75년 3월 23일 Richmond에서 Patrick Henry가 한 연설 내용입니다. 미국 독립에 영향을 받은 불린서 혁명 역시 자유를 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지게 하였습니다. 모두 18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해방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쪽인 남한에서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시작하였습니다. 6.25를 거치고 1960년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비록 개발독재기간을 경험하였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 중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남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 중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남한에는 인적자원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삽니다. 자유는 개인에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능력과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의 기업은 너무 성공적이자 공산당이 제재하고 공산당이 빼앗아 운영합니다. 개인이 공산당보다 능력이 있는 것을 용납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삼성을 탄압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이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탄압으로 이제는 3-4위로 떨어졌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삼성은 민노총 소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끌어내렸고 문재인은 삼성을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우파 정권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원도 없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에서 1등 반도체 회사 삼성이 태어나는데 가능했지만 중북좌파 문재인 정권은 삼성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는 Amazon Telsa Google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성공한 기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은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K-culture, K-food, K-화장품, 등 K가 붙으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합니다. 한국 젊은 여자들이 세계 golf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야구선수들 축구선수들이 세계로 진출합니다. 중국선수 북한선수들이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말은 듣지 못합니다. K-pop이 세계를 휩쓸고 BTS가 전세계 1위가 되기도 하는데 C-pop 또는 NK-pop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김밥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김 값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한 일인가요? 개인의 자유가 한 일입니다.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이 중북좌파 국가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5,000만에 불과하고 불과 60년 전에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부유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도록 만든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되느냐 또는 김일성을 추구하는 중북 좌파가 집권을 하고 좌파 독재가 대한민국을 최빈국으로 만들게 하느냐는 선택을 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재명이 승리하면 우리는 북한과 같이 최빈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김문수가 승리하면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김문수는 그런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Argentine는 1950년대까지도 세계 5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Peron의 인기영합주의가 시작되어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규모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국민 개인 소득은 대한민국의 반도 안 되어 지금은 세계 66위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6.25당시 한국을 원조한 국가이고 세계의 석유매장량의 17.8%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의 인기영합주의는 베네수엘라를 주력시키어 지금은 국민 개인 GDP 4,000불, 순위 127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쿠바는 1950년대에 미주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패한 바티스타 정권을 Castro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어 지금은 세계에서 최빈국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국민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의 1/7정도입니다. 위에도 말하였지만 북한은 1980년대 초 까지만 하여도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은 최빈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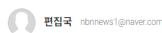
인기영합주의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국민을 못 살게 하는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60년만에 최빈국에서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인기영합주의와 중북좌파 정권은 대한민국을 순간적으로 다시 최빈국이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인기영합주의 중북좌파와 김문수의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서 선택을 필요당하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합니다. 현명한 여러분은 가족 친지들과 같이 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2025년 05년 16일 이영작

nbnews1@naver.com



지적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

우파들은 昨今の 국내 상황을 자유민주주의 대 중북좌파의 이념 갈등으로 인한 좌우 대결로 정의 내립니다. “이념이 밥 먹여주나?” 중북좌파 인기영합주의 이재명의 단골 메뉴입니다. 밥만 먹으면 되지 왜 꼭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느냐는 말로 들립니다. 중북좌파/주사파가 집권하면 어떻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념이 밥 먹여줍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최초로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삽니다. 수치가 말해줍니다. 중국의 국민 개인 소득이 13,000불가량 되고 우리 국민 개인 소득은 37,000불가량 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국민 개인 GDP 순위로 보면 한국 32위 중국 69위입니다.

아시아에서 유교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모두 6개국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북한입니다. 이 나라들의 국민 개인 GDP 순위로 보면 한국 32위 대만 33위 일본 34위 중국 69위 베트남 118위 북한 180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 대만 일본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 베트남 북한은 모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유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독

립운동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75년 3월 23일 Richmond에서 Patrick Henry가 한 연설 내용입니다. 미국 독립에 영향을 받은 불란서 혁명 역시 자유를 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모두 18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해방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나마 반쪽인 남한에서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6.25를 거치고 1960년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비록 개발독재 기간을 경험하였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 중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남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 중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남한에는 인적자원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삽니다. 자유는 개인에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능력과 역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의 기업은 너무 성공적이지 공산당이 제재하고 공산당이 빼앗아 운영합니다. 개인이 공산당보다 능력이 있는 것을 용납 못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삼성을 탄압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삼성이 세계 1등 반도체 기업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탄압으로 이제는

3-4위로 떨어졌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삼성은 민노총 소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끌어내렸고 문재인은 삼성을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우파 정권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원도 없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에서 1등 반도체 회사 삼성이 태어나는데 가능했지만 중북좌파 문재인 정권은 삼성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는 Amazon, Tesla, Google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성공한 기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은 그보다 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K-culture, K-food, K-화장품 등 K가 붙으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합니다. 한국 젊은 여자들이 세계 golf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세계로 진출합니다. 중국 선수 북한 선수들이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말은 듣지 못합니다. K-pop이 세계를 휩쓸고 BTS가 전 세계 1위가 되기도 하는데 C-pop 또는 NK-pop이라는 말은 못들어보았습니다. 한국 김밥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김값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한 일인가요? 개인의 자유가 한 일입니다.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입니다. 대한민국이 중북좌파 국가라면 절

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5,000만에 불과하고 불과 60년 전에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부유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도록 만든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되느냐 또는 김일성을 추구하는 중북 좌파가 집권을 하고 좌파 독재가 대한민국을 최빈국으로 만들게 하느냐는 선택을 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재명이 승리하면 우리는 북한과 같이 최빈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김문수가 승리하면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김문수는 그런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Argentine은 1950년대까지도 세계 5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Peron의 인기영합주의가 시작되어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규모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국민 개인 소득은 대한민국의 반도 안 되어 지금은 세계 66위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6.25 당시 한국을 원조한 국가이고 세계의 석유매장량의 17.8%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고 차베스의 인기영합주의는 베네수엘라를 추락시키어 지금은 국민 개인 GDP 4,000불, 순위 127위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쿠바는 1950년대에 미주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패한 바티스타 정권을 Castro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어 지금은 세계에서 최빈국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국민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의 1/7 정도입니다. 위에도 말하였지만 북한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우리보다 잘 살았지만 지금은 최빈국입니다.

인기영합주의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국민을 못 살게 하는지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인기영합주의와 종북좌파 정권은 대한민국을 순간적으로 다시 최빈국이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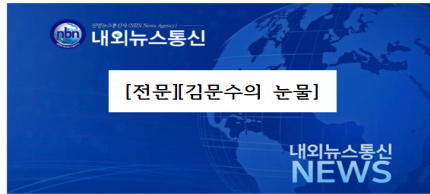
우리는 이재명의 인기영합주의 종북좌파와 김문수의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합시다. 현명한 여러분은 가족 친지들과 같이 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2025년 05년 16일 이영작

[전문]김문수의 눈물

▶ 편집국 | © 승인 2025.05.17 20:34



[전문]김문수의 눈물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울고 싶지 않다. 그저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고 싶다.

버스 안에서, 장바구니를 든 골목 어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삼킨 눈물들이 있다.

그 눈물에는 사연이 많다.

https://youtu.be/MgRuKmvOptc?si=rL0pTMBqkw0_Hs7U

무너진 삶의 자리, 잊힌 약속, 버티아만 했던 하루하루가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묵묵히 견디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조금씩 굳어져 간다.

울음을 삼킨채, 말할 곳도 없이 살아야 하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눈물을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사람이 있다.

정치인이기 전에, 사람다운 얼굴을 가진 한 사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 거 같다.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국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은 제가 대신 흘려겠습니다"

그의 말은 화려한 구호도, 꾸며낸 감성도 아니다.

그는 알고 있다. 삶이 무거운 사람은 눈물을 참는 법부터 배운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표정은 더욱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다가 온다.

김문수, 그는 삶의 낮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있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청년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지난날, 차가운 바닥에 엎어져 들었던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

그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듯하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 아픔을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의 이유를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 눈물 앞에 조용히 다가가, 내가 대신 울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그 내미는 손에 우리는 위로받는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내 아픔을 대신 풀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고, 마음이 덜 외롭다.

김문수의 표정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듯하다.

내가 흘릴 눈물을, 그가 대신 흘려겠다는 듯하다.

김문수의 그 얼굴이, 그런 마음이 오래도록 국민들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란다.

<https://www.freez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94>

nbnnews1@naver.com

▶ 편집국 nbnnews1@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전원]김문수의 눈물

울고 싶지 않다. 그저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고 싶다.

버스 안에서, 장바구니를 든 골목 어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삼킨 눈물들이 있다.

그 눈물에는 사연이 많다.

https://youtu.be/MgRuKmvOptc?si=rL0pTMBqkw0_Hs7U

무너진 삶의 자리, 잊힌 약속, 버텨야만 했던 하루하루가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묵묵히 견디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조금씩 굳어져 간다.

울음을 삼킨 채, 말할 곳도 없이 살아야 하는 날들이 쌓여갈수록,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눈물을 제가 닦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사람이 있다.

정치인이기 전에, 사람다운 얼굴을 가진 한 사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 거 같다.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국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은 제가 대신 흘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화려한 구호도, 꾸며낸 감성도 아니다.

그는 알고 있다. 삶이 무거운 사람은 눈물을 참는 법부터 배운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표정은 더욱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다가온다.

김문수, 그는 삶의 낮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있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청년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지난날,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들었던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

그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듯하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 아픔을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의 이유를 알아 주는 사람이다.

그 눈물 앞에 조용히 다가와, 내가 대신 울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그 내미는 손에 우리는 위로받는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내 아픔을 대신 품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고, 마음이 덜 외롭다.

김문수의 표정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듯하다.

내가 흘릴 눈물을, 그가 대신 흘리겠다는 듯하다.

김문수의 그 얼굴이, 그런 마음이 오래도록 국민들 가슴에 남아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란다.

<https://www.freez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94>

[전문] [대국민 호소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A 편집국 | © 승인 2025.05.17 13:40

“정직한 나라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사진-pixabay)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글을 통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범죄와 거짓이 지배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중범죄 혐의자 앞에, 줄지어 총성 맹세를 하는 일부 국민들과 기관, 단체들.

그 모습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양심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조롱당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는 바로 김문수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평생을 국민 곁에서, 맘 졸이는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떠한 부패나 특혜와도 무관한, 청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지도자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공감한 수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나섰던 일부 인사들은 경선에서 패배한 후 당을 등지고, 홀로 살아남겠다는 알뜰한 계산 속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의 영문이 달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직하게 싸워야 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당권만을 탐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정치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도 경멸했던 ‘기득권 정치’가 바로 당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당신들의 권력이 위태롭다 생각되어, 오히려 그를 발목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에 무릎 꿇을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세대를 위하여,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지도자,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주시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로, 정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진실이 이깁니다.”

2025년 5월 17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대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직한 미래를 염원하며

“중범죄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문수와 함께 만드는 정직한 나라”

“침묵은 공범, 지금은 단결할 때입니다”

nbnews1@naver.com

편집국 nbnews1@naver.com

지적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외뉴스통신 2025년 5월 17일자 정치면

[전문][대국민 호소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직한 나라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글을 통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범죄와 거짓이 지배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중범죄 혐의자 앞에, 줄지어 충성 맹세를 하는 일부 국민들과 기관, 단체들.

그 모습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양심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조롱당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는 바로 김문수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평생을 국민 곁에서, 땀 흘리는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떠한 부패나 특혜와도 무관한, 청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지도자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공감한 수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나섰던 일부 인사들은 경선에서 패배한 후 당을 등지고, 홀로 살아남겠다는 알팍한 계산 속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의 명운이 달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작 함께 싸워야 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당권만을 탐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정치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도 경멸했던 ‘기득권 정치’가 바로 당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 당신들의 권력이 위태롭다 생각되어, 오히려 그를 발목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들은 이미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에 무릎 꿇을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지도자,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주시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의로, 정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진실이 이깁니다.”

2025년 5월 17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는 국민 일동 대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직한 미래를 염원하며

“중범죄자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문수와 함께 만드는 정직한 나라”

“침묵은 공범, 지금은 단결할 때입니다”

HOME > 정치 > 정치일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 편집국 | ⌚ 승인 2025.06.04 17:13

[내외뉴스통신] 편집국

본 뉴스통신은 제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성명서 등 홍보 자료를 그대로 게재(2025년 4월 27일자 정치면 「[전문] [국민 필독 경고문]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등 7건)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2025년 5월 16일자 오피니언면 「[이영작박사 칼럼] 이념이 밥 먹여준다」)하여 공직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 1항제1호 및 제 7조(일반 선거기사) 제 2호, 제 11조(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 제 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nbnnews1@naver.com

 편집국 nbnnews1@naver.com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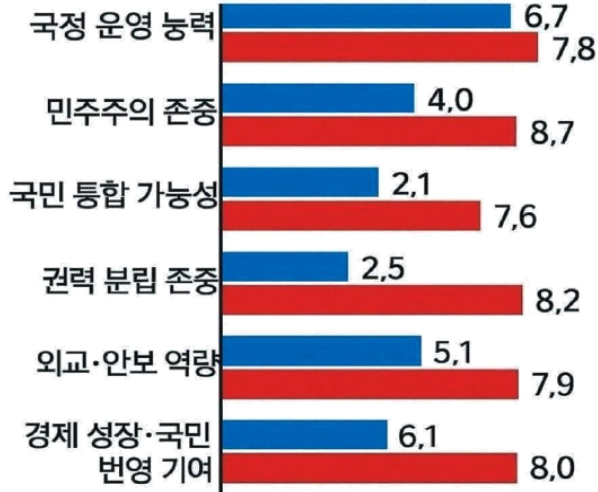
▲ 내외뉴스통신 2025년 6월 4일자 정치면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26
언론사	주식회사 경북산업(경북연합일보)
심의대상기사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21일자 1면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 제하의 기사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경북산업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경북연합일보 1면에 [별지] 경고결정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보도문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및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심의대상기사가 게재된 지면인 2025년 5월 21일자 1면의 기사 「李-金 개헌카드 ‘헛바퀴’…임기단축 합의 없을 듯」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리더십, 외교 및 안보역량, 경제 성장 기여 등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요소를 비교평가하면서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별지	경고결정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요소를 비교평가하면서(2025년 5월 21일자 1면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7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후보 역량

이재명 vs 김문수 국정 리더십 평가 차트



174 × 199 mm

▲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21일자 1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결정 알림

본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요소를 비교평가하면서 (2025년 5월 21일자 1면 'ChatGPT가 예측한 한국 대통령 후보 역량') 평가지표·기

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7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17.5*6.0)cm

▲ 경북연합일보 2025년 6월 5일자 1면

2. 경고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3
언론사	주식회사 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
심의대상기사	1. 전라매일 2025년 4월 22일자 11면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1)」 제하의 칼럼 2. 전라매일 2025년 4월 23일자 11면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2)」 제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한 칼럼을 게재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1)



최공섭
프리랜서 PD

“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을 위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가
6월 3일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시작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은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 (2021년 7월 1일 출마선언문 중)

올해는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영상 출마 선언 중)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13명의 인물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 본인을 민주공화국의 대표하는 일꾼, 머슴이나 도구, 대리인이라 부른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 즉 조선시대의 세습 왕부터 일본 식민지 시절의 총독, 오로지 지배자요 권력자였던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오는 6월 13일은 우리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선택의 날, 인사조직이론의 권위자 최동석 선생의 말이 감동을 준다.

“이재명은 국민을 수단이나 도구로 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도구처럼 써왔던 정치인들 틈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애써왔고 스스로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단순한 정치구호가 아니라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실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 필요합니다.(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중)

우리 최고법인 헌법 제1조 규정을 문자 그대로 실천되기를 고대하는 제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의 바램이

다. 이 날은 전 세계가 진짜 K-민주주의가 열매를 맺는 날임을 기대하고 어떻게 K-민주주의를 한국인들이 선택하는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이라는 K-민주주의 드라마에 스스로 머슴이 부르며 만들어낼 결말을 고대하는 것이다. 미국 타임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한국인 중에서는 아파트 아파트를 불러 인기를 모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함께 ‘올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하고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정치드라마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 대포 머슴, 도구가 되는 것으로 예견했다.

이재명 머슴의 정치드라마의 전개가 흥미로운 것은 평생토록 무(無)자화두를 들고 살았던 효봉 조계종 중정이 돌아가시기 33일 전인 1966년에 2025년까지는 열지 말라는 ‘역상록’이란 예언서를 남겼는데 ‘보이지 않는 영웅이며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이 25년 6월에 백두산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효봉스님은 ‘아 몰라 스님’, ‘너나 잘해라 스님’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1914년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당시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 최초로 판사를 역임했던 전설적 스토리를 가진 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군 예안면 청량산 자락에서 1963년 음력 10월 23일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

년 8월 열린우리당에 입당, 정치활동을 시작한 우리 시대의 상머슴이다. 성남시장 시절엔 시민의 머슴으로, 경기도 지사였을 때는 도민의 머슴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머슴으로 벌써 세 번째 손을 번쩍 들었다.

2004년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문재명 후보를 한국인 중에서는 아파트 아파트를 불러 인기를 모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함께 ‘올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하고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정치드라마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 대포 머슴, 도구가 되는 것으로 예견했다. 2004년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문재명 후보를 한국인 중에서는 아파트 아파트를 불러 인기를 모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함께 ‘올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하고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정치드라마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 대포 머슴, 도구가 되는 것으로 예견했다. 그의 역정은 놀랍고 경이적이다. 그의 가슴깊이 품고 있는 선명한 비전과 이 비전을 우리네 삶에 옮길 독특한 배짱과 용기를 가진 전신체제형 지도자로 우리 앞에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며...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오직 정적 이재명 죽이기에만 올인했던 대통령, 입만 열면 거짓말에 눈만 뜨면 술타령, 밤낮없이 점술가 도사를 찾은 대통령, 국민을 각자 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에, 경제를 죽이고, 북한까지 적대국으로 한 반도의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가 아니었던가? 바로 지난 입후한 겨울 살얼음에는 추위,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켜낸 국민들을 위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가 6월 3일이다.

(20.6×24.4)cm

▲ 전략매일 2025년 4월 22일자 11면

재남
생의 의결 사례

경상도 인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1)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을 위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가 6월 3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시작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은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 (2021년 7월 1일 출마선언문 중) 올해는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영상 출마 선언 중)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13명의 인물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 본인을 민주공화국의 대표 하는 일꾼, 머슴이나 도구, 대리인이라 부른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 즉 조선시대의 세습 왕부터 일본 식민지 시절의 총독, 오로지 지배자요 권력자였던 대통령이였다. 그러나 오는 6월 13일은 우리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선택의 날, 인사조직이론의 권위자 최동석 선생의 말이 감동을 준다.

“이재명은 국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도구처럼 써왔던

정치인들 틈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애써왔고 스스로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단순한 정치구호가 아니라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실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 필요합니다.(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 유튜브 중)”

우리 최고법인 헌법 제1조 규정을 문자 그대로 실천되기를 고대하는 제21대 대통령을 선출 하는 날의 바람이다. 이날은 전 세계가 진짜 K-민주주의가 열매를 맺는 날임을 기대하고 어떻게 K-민주주의를 한국민들이 선택하는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이라는 K-민주주의 드라마에 스스로 머슴이 부르며 만들어낼 결말을 고대하는 것이다. 미국 타임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한국인 중에서는 아파트 아파트를 불러 인기를 모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함께 ‘올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하고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정치 드라마로 한국의 차기 지도자, 대표 머슴, 도구가 되는 것으로 예견했다.

이재명 머슴의 정치 드라마의 전개가 흥미로운 것은 평생토록 무(無)자 화두를 들고 살았던 효봉 조계종 종정이 돌아가시기 33일 전인 1966년에 2025년까지는 열지 말라는 ‘역상록’이란 예언서를 남겼는데 ‘보이지 않는 영웅이며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이 25년 6월에 백두산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효봉스님은 '아 몰라 스님', '너나 잘해라 스님'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1914년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당시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 최초로 판사를 역임했던 전설적 스토리를 가진 분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군 예안면 청량산 자락에서 1963년 음력 10월 23일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8월 열린우리당에 입당, 정치활동을 시작한 우리 시대의 상머슴이다. 성남시장 시절엔 시민의 머슴으로, 경기도지사였을 때는 도민의 머슴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머슴으로 벌써 세 번째 손을 번쩍 들었다.

2004년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문재인 참여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파격 발탁되어 한미 FTA 타결을 주도했던 김현종이 '우리 나라 대통령은 그냥 유능한 게 아니라, 매우 유능해야 한다. 정치가 세상만사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글로벌시장, 외교, 안보, 경제공급망 각 분야별로 아는 게 많아야 한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다.'라고 말한 대로 올해 2025년 새로운 상머슴 대통령의 드라마를 엮어낼 이재명의 역정은 놀랍고 경이적이다. 그의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선명한 비전과 이 비전을 우리네 삶에 옮길 두둑한 배짱과 용기를 가진 전시 체제형 지도자로 우리 앞에 깃발을 들고 서

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오직 정적 이재명 죽이기에만 올인했던 대통령, 입만 열면 거짓말에 눈만 뜨면 술타령, 밤낮없이 점술가 도사를 찾은 대통령,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에, 경제를 죽이고, 북한까지 적대국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가 아니었던가? 바로 지난 엄혹한 겨울 살얼음 에는 추위,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켜낸 국민들을 위해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가 6월 3일이다.

경상도 안동 가난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2)



최공섭
프리랜서 PD

“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다 더욱

리얼하고 생생한

이재명의

‘딱 이겼수다’

라는 대선드라마가

성공 드라마가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

“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진 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4월 10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중)

상머슴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의 비전은 가슴을 뛰게할 만큼 확고하다. 여러 면에서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경제 상태, 전 세계가 성장을 전제가 떨어지고 있어서 바로 먹고사는 문제부터 들고 나선 비전,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가 먹고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 라는 김구 선생의 해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지금 문화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한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K-민주주의의 나라로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절대 검찰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의 성과는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를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라고 부

르며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런 나라 한 번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국민의 힘 후보들의 생각이 바로 당 비전이 ‘반 이재명 죽이기’로 8명의 후보가 하나같이 오직 한 사람 이재명 성토대회를 만들어 버리는 후안무치한 내란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아닌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막말로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전과자의 나라 만들어서야 되겠다’는 홍준표나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독재’라고 성토하는 이철우 후보들, 이재명 한 사람을 놓고 늑대처럼 달려드는 1대 8의 대통령 계임에 왜 그들은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가? 아직도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절대 권력 대통령 놀음을 하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

4월 15일 오전 10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원이 열렸고 바로 그날 이미 후원금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원을 모금되었고 6만 3천여명의 국민이 후원에 참여하여 20대 대선 경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99%가 10만원 미만의 정성 가득한 소액 후원으로 집계되었다. 20대 대선 당시에는 후원 첫날 약 9억 854만원을 모금했고, 두달 동안 3만 1천여명이 후원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두 배의 인원이 후원에 참여한 K-민주주의의 오늘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다시 한번 크게 외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있죠. 민족,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흰 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불날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오늘 이재명이 세 번째로 써 내려간 K-민주주의는 우리의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킬 K-민주주의 정치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라 평가받은 제주의 ‘당차고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식’ 관식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이낸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 사투리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보다 더욱 리얼하고 생생한 이재명의 ‘딱 이겼수다’라는 대선 드라마가 제21대 상머슴으로 경상도 안동 가난한 촌놈 대통령의 성공 드라마가 될 날을 고대하게 된다.

(20.8*22.8)cm

▲ 전라매일 2025년 4월 23일자 11면

경상도 인동 기반한 상머슴 대통령의 정치드라마를 볼 날을 고대하며(2)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보다 더욱 리얼하고 생생한 이재명의 ‘딱 이겼수다’라는 대선 드라마가 성공 드라마가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개 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진 심야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랴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4월 10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기자 회견 중)

상머슴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의 비전은 가슴을 뛰게 할 만큼 확고하다. 여러 면에서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경제 상태, 전 세계가 성장률 전체가 떨어지고 있어서 바로 먹고사는 문제부터 들고 나선 비전,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가 먹고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 라는 김구 선생의 혜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지금 문화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 하는 K- 컬처, 한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K-

민주주의의 나라로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절대 검찰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의 성과는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를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라고 부르며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나라 한 번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의 생각이 바로 당 비전이 ‘반 이재명 죽이기’로 8명의 후보가 하나같이 오직 한 사람 이재명 성토대회를 만들어 버리는 후안무치한 내란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아닌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막말에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전과자의 나라 만들어서야 되겠냐’는 홍준표나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독재’라고 성토하는 이철우 후보 등등, 이재명 한 사람을 놓고 늑대처럼 달려드는 1대 8의 대통령 게임에 왜 그들은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가? 아직도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절대 권력 대통령 놀음을 하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가?

4월 15일 오전 10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원이 열렸고 바로 그날 이미 후원금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원을 모금되었고 6만 3천여 명의 국민이 후원에 참여하여 20대 대선 경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99%가 10만원 미만의 정성 가득한 소액 후원으로 집

계되었다. 20대 대선 당시에는 후원 첫날 약 9억 854만원을 모금했고, 두 달 동안 3만 1천여 명이 후원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두 배의 인원이 후원에 참여한 K-민주주의의 오늘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다시 한번 크게 외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있죠.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흰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 국민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오늘 이재명이 세 번째로 써 내려간 K-민주주의는 우리의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킬 K-민주주의 정치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라 평가받은 제주의 ‘당차고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 사투리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보다 더욱 리얼하고 생생한 이재명의 ‘팍 이겼수다’라는 대선 드라마가 제21대 상머슴으로 경상도 안동 가난한 촌놈 대통령의 성공 드라마가 될 날을 고대하게 된다.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5

언론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의대상기사

1. 조선일보 2025년 4월 16일자 31면 하단 광고
2. 조선일보 2025년 4월 18일자 1면 하단 광고
3. 조선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조선일보 2025년 4월 16일자 31면

제1부 심의의결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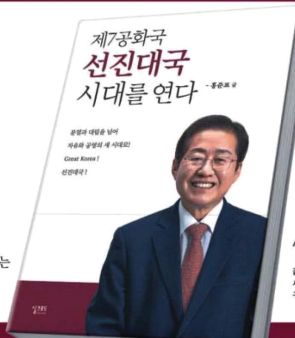
朝鮮日報 2025년 04월 18일
1면 (주요)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홍준표 글

**홍준표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책에는 홍준표의 30년 정치 역경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선진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철학, 비전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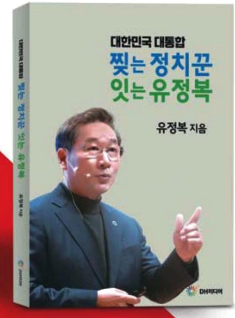


시크로드
Sikroad
값: 18,000원
시행에 있습니다.
구입문의: 031-955-6333

(K4-512.70cm)

▲ 조선일보 2025년 4월 18일자 1면

朝鮮日報 2025년 04월 21일
1면 (주요)




유정복 지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연합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원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령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도서관문의 (02-2272-9731)
(K4-512.60cm)

▲ 조선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122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6
언론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동아일보)
심의대상기사	1. 동아일보 2025년 4월 17일자 1면 하단 광고 2. 동아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東亞日報 2025년 04월 17일 1면 (총 1면)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홍준표 글

홍준표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책에는 홍준표의 30년 정치 역정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가 꿈꾸고, 준비하고, 이루고자 하는
선진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정책, 철학, 비전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시크로드
Sikroad
간: 18,000원
시행에 있습니다.
구입문의: 031-955-6333

185-9-15.0cm

▲ 동아일보 2025년 4월 17일자 1면

東亞日報 2025년 04월 21일 2면 (총 2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원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185-9-15.0cm

▲ 동아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의 결 번호

제21대 대선-자심20

언 론 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조선일보)

심의대상기사

조선일보 2025년 4월 17일자 31면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반대를 유도하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朝鮮日報

2025년 4월 17일
31면 (2025년 4월 17일)

트럼프, 1석2조 ① & ② 원해

김문수·한덕수·나경원 《드림팀》 만들라! 《성남 이재명파》 제압하라!

① 관세협상 성공 모델 ② 이재명 밀어내기 | (대권 당권 분리) 전제로 드라마 연출하라

우리는 특히 (김문수 / 나경원 / 한덕수) 3인을 주목한다. (한동훈 / 안철수) 등엔 관심이 없다. 그들이 정권 좌절 후, 다른 좋은 선수를 지지하고 협력하길 바랄 뿐이다.

《역전 극장》을 준비하라

김문수 전 장관은 정진 총리자 중 단연 지지를 1위다. 이렇듯 조세 관련 정진 총리자 한덕수 (당장) | 위다. 김문수가 (살아온 길, 사생활 노련미, 정책수완에 대한 평가) 등은 어떤 선수를보다도 바뀔다. (김백-김소-도덕성-노동 환경 제함-평생적 노후유)에서도 두드러진다.

《경제-통상외교-국제 노후유》에선 한덕수 대안이 단연 돋보인다. 한덕수 선수는 하버드 경제학박사 출신 경제통이다. (대우-삼성)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술관료, (경제-외교-관세-무역 협상)의 노련한 전문가다.

국회 정선에서 김문수-나경원 | 2위를 한다는 건게 아래 《김문수+한덕수+나경원》 (한덕수+김문수+나경원)이 《드림 팀》을 짜는 《이인철 코스》를 기대한다. (대통령 / 국무총리 / 당 대표) 등을 놓고서.

한국 자유 보수 우파의 대선 승리를 담보하고 자유대한

《대한민국 정권》을 어떤 전제와 기조로 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어떤 담론에서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어떤 비전으로 완결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듯 고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만큼 어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정선은 국민의힘의 행사가 아니란 뜻이다. (자유대한민국과 자유 국민 전체의 행사가 결된 행사)란 뜻이다. 《제2의 관국》 초입이랄까.

《성남 이재명파》와 싸울 자유의 투사는?

대권다나 63 대선에서 자유 국민의 선명성이 할 (제2)은 예시로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다. 저들은 (민주개혁 민중민주주의(N)) 체제 혁명 끝)들이다. 그중에서도 일말이 가장 심하다는 《성남 이재명파》다.

그런 그는 주권이권을 절정군이 불린다. 《공공연》 《세》라 하면 된다. 복에는 《우리 길일성-김일성 선대의 성과가 펼쳐지신 안 된다》고 했다. 《선관령은 뇌물 조로 800만 달러 송금》 혐의로 재판 중이다. UN 결의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위반 제재 대상) 일보 직전

▲ 이재명파 이재명파의 연호 정체를 보면 알 수 있다. 000000 있다. 《제2》는 전술비밀을 띠고 있다. 1인당 현금 250만(13조원 소)으로 움직이는 배후유망의 체제를 생각하게 한다. 김문수(재정 총) 무서운-평생-이재명파 정권이 47%는 수백억-수천억-수십억(수십)을 노리고 있는 국민도 있다. 한덕수 / 김문수 / 나경원 《드림팀》이 구성되면, 《성남 이재명파》 제압을 희망할 수 있다. © 뉴데일리

이러 할 수 있다.

자유인들은 이런 《성남 이재명파》와 싸울 《자유의 투사》로서 누가 가장 적합할지를 함께 발굴해 내야만 한다.

한국 자유 보수 우파의 대선 승리를 담보하고 자유대한

트럼프의 미국이 보내는 시그널

대마침 한국과 미국 사이엔 (관세외교-한국)의 핵무장-대중국 디커플링) 문에서 시급히 해결할 방안이 없다.

《한덕수 vs. 트럼프 담판》은 《최치(崔錙)의 맞수》가 《최선의 협약》을 만들어 내는 《최고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게 자유대한민국이 화생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상공적 관세협상 모델》을 제재 만들어 보이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파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고.

렛츠고 투게더!

이 기사에 인스타그램 뉴데일리카 본캠프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스타그램 뉴데일리카 본캠프 / 전 조선일보 주필

한동훈 2025년 4월 16일 게재 제2025-4-1

이 기사는 인스타그램 뉴데일리카 본캠프 / 전 조선일보 주필

한동훈 2025년 4월 16일 게재 제2025-4-1

NO. 147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츠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재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680570 뉴데일리(주)

04-515-3300

▲ 조선일보 2025년 4월 17일자 31면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24
언론사	주식회사 경북산업(경북연합일보)
심의대상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13일자 11면 「김문수를評한다」 제하의 기고 2.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21일자 11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 제하의 기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기고

김문수를 評한다

김문수는 완전한 인간에 가깝다. 그는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흠 잡을데 없는 완전 무결점의 인간이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같은 정치력을 겸비하였음이 보수의 무덤이던 부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하고서 후배에게 양보할 때까지 대단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국가경영에 있어서는 박정희 같은 추진력과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G2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능력자임이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검증된 사람이다.

이것만 보면 금수저 출신 같아 보이지만 그의 청춘시절은 인간 본성에 충실한 투쟁의 역사였다.

짚어지게 가난한 7남매 중에 여섯번째로 태어나서 잠을 설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나 유신 반대 투쟁으로 재학 후 복학이 되었으나 민청학련에 연루되어 또 재적되면서 학업은 포기하고 위장취업으로 노동계에 투신하여 노동운동의 전설이 된다.

그는 요즘 같은 귀족노조가 아니라 정말로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쟁한 진정한 노동 운동가였다.

서노련 지도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있는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협의 등으로 구속되어 2년 이상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때 보안사에 잡혀가서 엄청난 고문으로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갔음에도 심상정 등의 후배 은거지 등을 밟지 않았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그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운동을 할 때나 국회의원이자도 지사 시절에도 그는 언제나 약자의 편이었다.

도지사로서는 철원에 있는 한센 마을을 찾은 유일한 사람이며, 1박을 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는 것은 성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인성의 소유자임을 보여준 것이다.

1994년 북학으로 비록 늦깎이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지만 경영학도답게 경기지사 시절 8년만에 이룬 성과는 엄청난 것이다.

삼성반도체 평택유지, 여주 하이닉

스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GTS 철도설계 및 착공, 광교신도시 개발, 파주 LG 디스플레이, 광역교통연계망 설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다.

과히 박정희 대통령에 필적 할 만한 창의력과 추진력의 소유자임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만약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나라는 제2의 경제기적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

노조와 사법 리스크로 우리 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 하거나 외국 기업 유체에 어려움이 있는 조건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이면서, 우리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초일류 세계적 제조업에 기술혁신 RND를 접목시켜 획기적인 조격차를 벌릴 수 있는 구성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경기도를 탈바꿈 시켰듯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탈바꿈 시킬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그의 따뜻한 애민정신은 성장의 낙수효과가 서민층으로 스며 들어 풍요로운 나라를 비로서 만들 유일한 지도자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성장에 목매어 왔으나 이제는 성장과 분배의 안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 보다도 실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김문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겸손하여 과거의 행적과 실적을 자랑하거나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보상도 거절한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이다.

무엇보다도 청렴결백하다.

국회의원 12년, 도지사 8년을 한 사람이지만 일반 중산층 보다 가난하게 산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 이상 적합한 인물이 어디 있었는가?

더 이상 법률 전공자는 이제 그만 하면 좋겠다.

법조계 출신들은 이 나라 사회의 유리한 위치에서 이 나라를 요리하여 그들의 기득권 과 벼속만 채우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질체질명의 위기로 물리고

있다.

또한 지금은 비상사국이므로 안정적 관리형 보다는 능력과 돌파력을 갖춘 인사가 제적인 시기임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부를 때는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서 비정치인인 윤석열을 선호한 것이었으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후배에게 배신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정치인인면서 비법조계인 경영학 전공자가 맡는 것이 자연스런 하늘의 뜻으로 보인다.

김문수는 이와 같은 능력을 겸비하였음에도 인륜의 지원이 없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대권주자로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할 수 있겠나.

김문수는 가장 낮은 곳의 국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삶의 궤적을 실천적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좌우 통할 그 차례 라 할 수 있다.

그는 현재 우리 나라의 산업 잠재력이 위험 받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하여 어느 나라도 따라 올 수 없는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이며, 질체질명의 국가적 난국을 타개 할 수 있는 강단과 결기를 고루 갖춘 지도자라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특히 대선 경쟁 상대인 이재명의 지지기반인 읍지에서 자수성가한 코스프레의 대척 점에 있는 사람이 김문수이다. 김문수의 삶의 궤적이 알려 지기만 하면 이재명은 게임이 될 수 없다.

위나 겸손하여 본인의 장점을 알리지 않아서 저평가된 부분 들이 제대로 조명만 된다면 이재명은 적수가 될 수 없다.

여기에 사실상의 걸림돌은 국회 내부에 있음이 안타까우며, 그를 더 적나라하게 소개하기에는 나의 어휘력 부족함이 한스러울 뿐이다.

佛記 2569 날에 피주농부

182 X 320 mm

김문수를 評한다

김문수는 완전한 인간에 가깝다.

그는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완전 무결점의 인간이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같은 정치력을 겸비 하였음이 보수의 무덤이던 부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하고서 후배에게 양보할 때까지 대단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국가경영에 있어서는 박정희 같은 추진력과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을 G2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능력자임이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검증된 사람이다.

이것만 보면 금수저 출신 같아 보이지만 그의 청춘시절은 인간 본성에 충실한 투쟁의 역사였다.

짚어지게 가난한 7남매 중에 여섯번째로 태어나서 잠을 설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나 유신 반대 투쟁으로 제적 후 복학이 되었으나 민청학련에 연루되어 또 제적되면서 학업은 포기하고 위장취업으로 노동계에 투신하여 노동운동의 전설이 된다.

그는 요즘 같은 귀족노조가 아니라 정말로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쟁한 진정한 노동 운동가였다.

서노련 지도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있던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년 이상 투옥 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때 보안사에 잡혀가서 엄청난 고문으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음에도 심상정 등의 후배 은거지 등을 불지 않았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그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운동을 할 때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절에도 그는 언제나 약자의 편이었다.

도지사로서는 철원에 있는 한센 마을을 찾은 유일한 사람이며, 1박을 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 하려 노력했다는 것은 성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인성의 소유자임을 보여준 것이다.

1994년 복학으로 비록 늦깎이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지만 경영학도답게 경기 지사 시절 8년 만에 이룬 성과는 엄청난 것이다.

삼성반도체 평택 유치, 여주 하이닉스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GTS 철도설계 및 착공, 광고신도시 개발, 파주 LG 디스플레이, 광역교통연계망 설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다.

과히 박정희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창의력과

추진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만약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제2의 경제기적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

노조와 사법 리스크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거나 외국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초일류 세계적 제조업에 기술혁신 RND를 접목시켜 획기적인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구상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경기도를 탈바꿈시켰듯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탈바꿈시킬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그의 따뜻한 애민정신은 성장의 낙수 효과가 서민층으로 스며들어 풍요로운 나라를 비로소 만들 유일한 지도자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성장에 목매어 왔으나 이제는 성장과 분배의 안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김문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겸손하여 과거의 행적과 실적을 자랑하거나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보상도 거절한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이다.

무엇보다도 청렴결백하다.
국회의원 12년, 도지사 8년을 한 사람이

지만 일반 중산층보다 가난하게 산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인물로서 이 이상 적합한 인물이 어디 있겠는가?

더 이상 법률 전공자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법조계 출신들은 이 나라 사회의 유리한 위치에서 이 나라를 요리하여 그들의 기득권과 뺏속만 채우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또한 지금은 비상시국이므로 안정적 관리형보다는 능력과 돌파력을 갖춘 인사가 제격인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부를 때는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어서 비정치인인 윤석열을 선호한 것이었으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후배에게 배신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정치인 이면서 비법조계인 경영학 전공자가 맡는 것이 자연스런 하늘의 뜻으로 보인다.

김문수는 이와 같은 능력을 겸비하였음에도 언론의 지원이 없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대권 주자로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할 수 있겠나.

김문수는 가장 낮은 곳의 국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삶의 궤적을 실천적으로 살아온 사람

으로서 좌우 통합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잠재력이 위협 받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하여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이며, 절체절명의 국가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강단과 결기를 고루 갖춘 지도자라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특히 대선 경쟁 상대인 이재명의 지지기반인 음지에서 자수성가한 코스프레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김문수다. 김문수의 삶의 궤적이 알려지기만 하면 이재명은 게임이 될 수 없다.

워낙 겸손하여 본인의 장점을 알리지 않아서 저평가된 부분들이 제대로 조명만 된다면 이재명은 적수가 될 수 없다.

여기에 사실상의 걸림돌은 국힘 내부에 있음이 안타까우며, 그를 더 적나라하게 소개 하기에는 나의 어휘력 부족함이 한스러울 뿐이다.

佛紀 2569 날에

파주농부

기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외세도, 경제도 아니다.

바로 국내에 뿌리박은 '내란세력' 그 중심에 선 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내란의 본질은 무력만이 아니다.

현정을 파괴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판단을 조작하는 정치 공작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내란이다.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있다.

탄핵도, 선거도, 입법도, 사법도 모두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나라는 법치가 아닌 보복정치의 도가니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완벽한 후보를 기대할 수 없다.

모두가 부족하다.

최선의 후보를 찾기 어렵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현정을 수호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려면 이재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괜찮다.

단 한 사람,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교체 문제가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자라도록,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피로 지겨운 자유민주주의를 끝끝내 지켜내기 위해, 6·3 대선에서 당신의 소중한 한 표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달라.

이재명만은 결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소한의 선택이다.

독자 청모 씨

182 × 98 mm

▲ 경북연합일보 2025년 5월 21일자 11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택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외세도, 경제도 아니다.

바로 국내에 뿌리박은 '내란세력' 그 중심에 선 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내란의 본질은 무력만이 아니다.

헌정을 파괴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판단을 조작하는 정치 공작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내란이다.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있다.

탄핵도, 선거도, 입법도, 사법도 모두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나라는 법치가 아닌 보복정치의 도가니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완벽한 후보를 기대할 수 없다.

모두가 부족하다.

최선의 후보를 찾기 어렵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헌정을 수호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려면 이재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괜찮다.

단 한 사람,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교체 문제가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자라도록,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끝끝내 지켜내기 위해, 6·3대선에서 당신의 소중한 한 표로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달라.

이재명만은 결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소한의 선택이다.

독자 정모 씨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25
언론사	주식회사 자유일보(자유일보)
심의대상기사	자유일보 2025년 5월 16일자 14면 만평 「3권장악...」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변형 및 재구성한 만평을 게재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사진게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자유일보 2025년 5월 16일자 14면

3. 주의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
언론사	주식회사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
심의대상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일간경북신문 2025년 4월 18일자 6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홍준표’」 제하의 기사2. 일간경북신문 2025년 4월 22일자 7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제하의 기사3. 일간경북신문 2025년 4월 25일자 1면 「국힘 지지층+무당층 ‘홍준표 1위’ 23%」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홍준표'



여론조사 맛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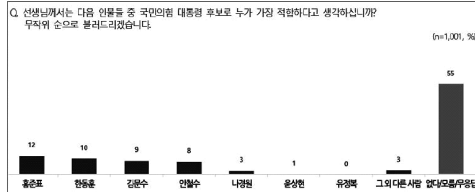
한동훈 > 김문수 > 안철수

'반드시' 적극 투표층 82%

국민의힘이 오는 22일까지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선을 통해 4명의 2차 진출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국민의회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다.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준표 후보라는 응답이 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후보 10%, 김문수 후보 9%, 안철수 후보 8%, 4위권에 진입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 3%, 윤상현 의



원 1%, 그 외 다른 사람 3%로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없다'는 48%, '모름/무응답'은 7%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55%로 절반을 넘겼다.

연령대별로 홍 후보는 청년세대인 18~29세에서 23%로 타 후보를 압도했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가 각각 14%, 19%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는 홍 후보(17%)와 안 후보(16%)가 엇비슷했다. 40대에서는 한 후보와 안 후보가 9%로 같았다.

지역별 서울(13%), 인천·경기(10%)에서는 홍 후보가 선두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17%)에서는 한 후보

가, 광주·전라(10%)에서는 안 후보가 우세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홍 후보와 김 후보가 19%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16%)과 강원·제주(16%)에서는 홍 후보가 가장 앞섰다.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와 김문수가 23%의 지지를 받으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어 3위 한동훈 19%,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4%로 순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인 '없음/모름/무응답'에서는 홍준표·한동훈 7%, 김문수 5%, 안철수

3%, 나경원 2%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 보수층에서는 홍준표가 2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가 20%로 2위를 차지했고, 3위 한동훈 12%,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5%였다.

중도층의 경우 한동훈이 12%로 가장 앞섰고, 이어 안철수 10%, 홍준표 8%, 김문수 5%, 나경원 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조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층이 82%로 나타났다.

이어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2%였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투표층(전혀 + 별로)은 6%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374)의 92%, 국민의힘 지지층(n=302)의 8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태기자 (23.6~14.1)cm

▲ 일간경북신문 2025년 4월 18일자 6면

보도내용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홍준표'

여론조사 맛보기

한동훈>김문수>안철수

'반드시' 적극 투표층 82%

국민의힘이 오는 22일까지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선을 통해 4명의 2차 진출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국민의회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다.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준표 후보라는 응답이 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후보 10%, 김문수 후보 9%, 안철수 후보 8%로, 4위권에 진입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 3%, 윤상현 의원 1%, 그 외 다른 사람 3%로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없다'는 48% '모름/무응답'은 7%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55%로 절반을 넘겼다.

연령대별로 홍 후보는 청년세대인 18~29세에서 23%로 타 후보를 압도했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가 각 14%, 19%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는 홍 후보(17%)와 안 후보(16%)가 엇비슷했다. 40대에서는 한 후보와 안 후보가 9%로 같았다.

지역별 서울(13%), 인천·경기(10%)에서는 홍 후보가 선두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17%)에서는 한 후보가, 광주·전라(10%)에서는 안 후보가 우세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홍 후보와 김 후보가 19%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16%)과 강원·제주(16%)에서는 홍 후보가 가장 앞섰다.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와 김문수가 23%의 지지를 받으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어 3위 한동훈 19%,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4%로 순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인 '없음/모름/무응답'에서는 홍준표·한동훈 7%, 김문수 5%, 안철수 3%, 나경원 2%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 보수층에서는 홍준표가 2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가 20%로 2위를 차지했고, 3위 한동훈 12%, 4위 나경원 6%, 5위 안철수 5%였다.

중도층의 경우 한동훈이 12%로 가장 앞섰고, 이어 안철수 10%, 홍준표 8%, 김문수 5%, 나경원 2%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조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이 82%로 나타났다.

이어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은 12%였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 투표층(전혀 + 별로)은 6%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374)의 92%, 국민의힘 지지층(n=302)의 8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8주 연속 오차범위 밖 '정권 연장' 여론 앞서

국민의힘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선출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기관인 의뢰로 4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집계 결과, 김문수 후보가 18.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한동훈 후보 14.9%, 3위 홍준표 후보 12.4%, 4위 안철수 후보 9.6%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선틀인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집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7.8%로 타 후보에 비해 강한 보수 핵심층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한동훈 후보 19.8%, 홍준표 후보 17.9%, 나경원 후보 10.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차 경선이 3강 2중으로 전개되는 양상에서 전체 집계의 4위는 안철수 후보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집계 결과에선 나경원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 최종 4인 경선 진출에 막판까지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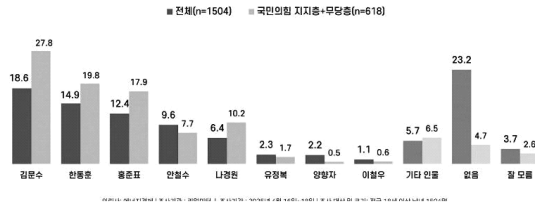
또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상승 한 반면, 국민의힘은 4주 연속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15.8%포인트 벌어졌다.

최근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의 '집무실 세종 이전·총칭 행정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총청권과 영남권 정책공약으로 표심 공약을 하면서, 충청권과 PK, 50대, 진보층 지지층 결집에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리얼미터의 4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 민주당은 2.0%P 높아진 48.7%, 국민의힘은 0.2%P 낮아진 32.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1.4%P 낮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아진 4.2%, 개혁신당은 0.2%P 높아진 2.9%, 진보당은 변동없는 0.8%, 기타 정당은 1.3%P 낮아진 2.2%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7%P 높아진 8.4%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10.3%P ↑), 부산·울산·경남(8.1%P ↑), 광주·전라(6.1%P ↑), 여성(2.6%P ↑), 50대(10.4%P ↑), 70대 이상(3.7%P ↑), 20대(3.3%P ↑), 진보층(7.3%P ↑), 농림어업(12.2%P ↑), 무직/은퇴/기타(6.1%P ↑), 자영업(4.8%P ↑)에서 상승했고, 대구·경북(7.7%P ↓), 인천·경기(2.2%P ↓), 40대(3.3%P ↓), 60대(3.3%P ↓)에서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4.9%P ↓), 부산·울산·경남(3.9%P ↓), 50대(10.4%P ↓), 진보층(5.7%P ↓), 자영업(5.6%P ↓)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7.6%P ↑), 인천·경기(2.3%P ↑), 광주·전라(2.1%P ↑), 70대 이상(5.2%P ↑), 20대(2.6%P ↑), 40대(2.0%P ↑), 보수층(2.3%P ↑), 학생(3.8%P ↑), 무직/은퇴/기타(2.6%P ↑), 가정주부(2.3%P ↑)에서는 상승했다.

또 차기대선과 관련해 '정권교체' 여론은 2월 말(4주차) 이후 8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권 우위 구도가 지속되면서 정치 지형이 야권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 교체(68.7%) 선호가 정권 연장(27.4%) 여론보다 크게 앞서며 야권 출립 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대구·경북(TK)과 60·70세 이상의 전통적 보수 강세 지지층에서도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여론이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의힘으로선 경고등이 커

진셈이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 의견이 전 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9.9%,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1.0%포인트 하락한 34.3%를 기록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25.6%포인트로 2월 4주차 이후 8주째 오차범위(±2.5%P)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5.8%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역별 대부분의 권역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호남권(정권 연장 21.7% vs 정권교체 75.7%)에서 가장 우세했다.

이어 서울(33.9% vs 61.6%), 인천/경기(33.8% vs 60.2%), 충청권(33.2% vs 60.2%), PK(36.3% vs 57.3%) 순이었다. TK(49.5% vs 42.9%)에서는 정권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정권 연장 22.3% vs 정권교체 74.2%), 50대(22.0% vs 74.0%), 30대(35.6% vs 59.7%), 20대(37.2% vs 54.8%)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한 반면, 70세 이상(48.0% vs 41.8%)과 60대(44.8% vs 50.0%)에서는 정권연장 의견이 앞섰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0.3%가 정권연장론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6.9%는 정권교체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25.4%)보다 정권교체(47.0%) 의견이 많이 앞섰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 내에서의 68.7%가 정권연장을, 진보층 내에서의 93.0%는 정권교체를 기대했고,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연장(27.4%)보다 정권교체(68.7%) 쪽이 많았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6.6%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김성태기자
(17.7-29.0)cm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 김문수'

8주 연속 오차범위 밖 '정권 연장' 여론 앞서

국민의힘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21대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선출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집계 결과, 김문수 후보가 18.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한동훈 후보 14.9%, 3위 홍준표 후보 12.4%, 4위 안철수 후보 9.6%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선률인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집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7.8%로 타 후보에 비해 강한 보수 핵심층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한동훈 후보 19.8%, 홍준표 후보 17.9%, 나경원 후보 10.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차 경선이 3강 2중으로 전개되는 양상에서 전체 집계의 4위는 안철수 후보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집계 결과에선 나경원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 최종 4인 경선 진출에 막판까지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4주 연속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15.8%포인트로 벌어졌다.

최근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들의 '집무실 세종 이전·충청 행정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과 영남권 정책 공약으로 표심 공략을 하면서, 충청권과 PK, 50대, 진보층 지지층 결집에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리얼미터의 4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 민주당은 2.0%p 높아진 48.7%, 국민의힘은 0.2%p 낮아진 32.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1.4%p 낮아진 4.2%, 개혁신당은 0.2%p 높아진 2.9%, 진보당은 변동 없는 0.8%, 기타 정당은 1.3%p 낮아진 2.2%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7%p 높아진 8.4%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10.3%p ↑), 부산·울산·경남(8.1%p ↑), 광주·전라(6.1%p ↑), 여성(2.6%p ↑), 50대(10.4%p ↑), 70대 이상(3.7%p ↑), 20대(3.3%p ↑), 진보층(7.3%p ↑), 농림어업(12.2%p ↑), 무직/은퇴/기타(6.1%p ↑), 자영업(4.8%p ↑)에서 상승했고, 대구·경북(7.7%p ↓), 인천·경기(2.2%p ↓), 40대(3.3%p ↓), 60대(3.3%p ↓)에서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4.9%p ↓), 부산·울산·경남(3.9%p ↓), 50대(10.4%p ↓), 진보층(5.7%p ↓), 자영업(5.6%p ↓)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7.6%P ↑), 인천·경기(2.3%P ↑), 광주·전라(2.1%P ↑), 70대 이상(5.2%P ↑), 20대(2.6%P ↑), 40대(2.0%P ↑), 보수층(2.3%P ↑), 학생(3.8%P ↑), 무직/은퇴/기타(2.6%P ↑), 가정주부(2.3%P ↑)에서는 상승했다.

또 차기대선과 관련해 ‘정권교체’ 여론은 2월 말 (4주차) 이후 8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권 우위 구도가 지속되면서 정치 지형이 야권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 교체(68.7%) 선호가 정권 연장(27.4%) 여론보다 크게 앞서며 야권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대구·경북(TK)과 60·70세 이상의 전통적 보수 강세 지지층에서도 정권 연장과 정권교체 여론이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의힘으로선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 의견이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9.9%,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1.0%포인트 하락한 34.3%를 기록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25.6%포인트로 2월 4주차 이후 8주째 오차범위(±2.5%P)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5.8%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역별 대부분의 권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호남권(정권 연장 21.7% vs 정권교체 75.7%)에서 가장 우세했다.

이어 서울(33.9% vs 61.6%), 인천/경기(33.8% vs 60.2%), 충청권(33.2% vs 60.2%), PK(36.3% vs 57.3%) 순이었다. TK(49.5% vs 42.9%)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정권 연장 22.3% vs 정권교체 74.2%), 50대(22.0% vs 74.0%), 30대(35.6% vs 59.7%), 20대(37.2% vs 54.8%)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우세한 반면, 70세 이상(48.0% vs 41.8%)과 60대(44.8% vs 50.0%)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0.3%가 정권 연장론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6.9%는 정권 교체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연장(25.4%)보다 정권 교체(47.0%) 의견이 많이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 내에서의 68.7%가 정권 연장을, 진보층 내에서의 93.0%는 정권 교체를 기대했고,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 연장(27.4%)보다 정권교체(68.7%) 쪽이 많았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6.6%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국힘 지지층+무당층 ‘홍준표 1위’ 23%

한동훈 > 김문수 > 안철수 25% 의견 유보 표심 변수



국힘 21대 대통령 후보를 3차 경선을 통해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인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동훈·김문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 본선에서 확장성을 엿볼 수 있는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각각 우위를 보여, 응답자 정치 성향별 다른 표심도 드러냈다.

24일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날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은 홍준표 후보 23%, 한동훈 후보 22%, 김문수 후보 19%, 안철수 6%를 각각 선택했다.

다만, '없다'(21%)와 '모름·무응답'(4%)이 25%로 4명 중 1명이 의견을 유보해, 향후 이들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연결

대별로 살펴보면 홍 후보가 20세 이하(42%), 30대(31%), 40대(26%)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50대에서는 한 후보가 27%, 김 후보가 26%로 비슷했고, 홍 후보는 19%로 집계됐다. 60대에서는 한 후보가 30%, 김 후보는 28%, 70대 이상에서는 35%로 동률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김 후보가 29%, 홍 후보가 27%, 한 후보가 25%, 안 후보는 5% 순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8%, 기타는 6%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한 후보와 홍 후보가 17%로 같았고, 안 후보 7%, 김 후보 5%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한 후보가 17%였고 홍 후보(12%), 안 후보(9%), 김 후보(7%)가 뒤를 이어 국민의힘 지지층과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은 당내 경선 이후 본선 경쟁력에서 중도 확장성과 연결되는 지표다.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 24%, 홍 후보 23%, 한 후보 19%로 나타나, 중도층의 민심과 보수층의 민심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16%, 홍 후보가 15%, 김 후보가 12%로 오차범위 내 3파전을 벌였고 안 후보는 7%로 집계됐다. 다만 없다는 42%, 모름·무응답은 3%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16.1%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응답률 20%,표본오차 ±3.1),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느냐'는 질문엔, 홍준표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동훈(13%), 김문수(11%), 안철수(8%) 후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의견 유보'(없다+모름/무응답)가 49%로 가장 높았다.

국힘 지지층(n=347)에서는 김문수(28%), 홍준표(26%), 한동훈(22%) 순으로, 김 후보가 가장 높았다. 보수층(n=311)에서도 김문수(26%)가 1위를 기록했고, 중도층(n=331)에서는 홍준표(14%)가 가장 높았고, 한동훈·안철수(각각 12%)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태기자

(17.6*17.9)cm

▲ 일간경북신문 2025년 4월 25일자 1면

보도내용

국힘 지지층+무당층 ‘홍준표 1위’ 23%

한동훈>김문수>안철수

25% 의견 유보 표심 변수

국힘 21대 대통령 후보를 3차 경선을 통해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인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한동

훈·김문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 본선에서 확장성을 엿볼 수 있는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각각 우위를 보여, 응답자 정치 성향별 다른 표심도 드러냈다.

24일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날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은 홍준표 후보 23%, 한동훈 후보 22%, 김문수 후보 19%, 안철수 6%를 각각 선택했다.

다만, '없다'(21%)와 '모름·무응답'(4%)이 25%로 4명 중 1명이 의견을 유보해, 향후 이들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홍 후보가 20세 이하(42%), 30대(31%), 40대(26%)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50대에서는 한 후보가 27%, 김 후보가 26%로 비슷했고, 홍 후보는 19%로 집계됐다. 60대에서는 한 후보가 30%, 김 후보는 28%, 70대 이상에서는 35%로 동률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김 후보가 29%, 홍 후보가 27%, 한 후보가 25%, 안 후보는 5% 순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8%, 기타는 6%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한 후보와 홍 후보가 17%로 같았고, 안 후보 7%, 김 후보 5%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한 후보가 17%였고 홍 후보(12%), 안 후보(9%), 김 후보(7%)가 뒤를 이어 국민의힘 지지층과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은 당내 경선 이후 본선 경쟁력에서 중도 확장성과 연결되는 지표다.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 24%, 홍 후보 23%, 한 후보 19%로 나타나, 중도층의 민심과 보수층의 민심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16%, 홍 후보가 15%, 김 후보가 12%로 오차범위 내 3파전을 벌였고 안 후보는 7%로 집계됐다. 다만 없다는 42%, 모름·무응답은 3%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16.1%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응답률 20%, 표본오차 ± 3.1),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느냐'는 질문엔, 홍준표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동훈(13%), 김문수(11%), 안철수(8%) 후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의견 유보'(없다+모름/무응답)가 49%로 가장 높았다.

국힘 지지층(n=347)에서는 김문수(28%), 홍준표(26%), 한동훈(22%) 순으로, 김 후보가 가장 높았다. 보수층(n=311)에서도 김문수(26%)가 1위를 기록했고, 중도층(n=331)에서는 홍준표(14%)가 가장 높았고, 한동훈·안철수(각각 12%) 순으로 나타났다.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2
언론사	주식회사 이투데이(이투데이신문)
심의대상기사	이투데이신문 2025년 4월 18일자 8면 「시에 AI 공약 물었더니 이재명·김경수 ‘★★★★’ 김동연 ‘★★★’」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들의 AI 공약에 대해 비교평가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예비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였으며,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2항 제2호,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AI에 AI 공약 물었더니 이재명·김경수 '★★★★' 김동연 '★★★'

민주당 후보 3인 평가

이재명 "전국민 AI 활용"
AI 단과대학·GPU 5만개 확보
실현 가능성 있지만 재원 물음표

김경수 "민관 AI 투자"
세금 더 걷고 50조원 기금 마련
자금 조달 확실하지만 국민 부담

김동연 "AI 인프라 확충"
GPU 100만개 비축 비현실적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선 김경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념 부합성에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AI 관련 공약을 분석한 후 이재명, 김경수 예비후보의 공약에 높은 점수를 줬다.

17일 본지가 생성형 AI '퍼플렉시티'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AI 공약을 정리해 분석 및 평가를 맡긴 결과다. 평가 기준은 경제적 효과, 실현 가능성, 민주당 이념 부합성 3가지로 설정했고, AI에 종합 평가

AI가 평가한 민주당 AI 공약 * 출처: 퍼플렉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국민 AI 활용 AI 단과대 설립 GPU 5만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 첨단기술 육성 50조 기금 조성 조세부담을 22%로 늘려 재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인프라 확충 100만 GPU 확보 핵심 인재 유치
<p>이재명 후보</p> <p>경제적 효과 ★★★★★ 실현 가능성 ★★★★★ 종합 평가 ★★★★★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생태계 전략</p>	<p>김경수 후보</p> <p>경제적 효과 ★★★★★ 실현 가능성 ★★★★★ 종합 평가 ★★★★★ 실현 가능한 재원 계획 중심 정책</p>	<p>김동연 후보</p> <p>경제적 효과 ★★★★★ 실현 가능성 ★★★★★ 종합 평가 ★★★★★ 과감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음</p>

및 별점을 매길 것을 주문했다. AI는 세 후보 공약의 공통점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AI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세 후보 모두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약의 중반에선 세 후보가 비슷했지만, 각론의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AI는 평가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만큼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이념 부합성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모두의 AI'와 김경수 후보의 정부 주도 혁신이 민주당의 이념적 지향과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준별로 보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선 김동연 후보가 별 5개로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를 앞섰다. AI는 김동연

후보의 김경점으로 △과감한 인프라 투자 △혁신적 인재 유치 전략 △선제적 위험 관리를 꼽았다. 과감한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인재 유치, 안전망 구축을 통해 AI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AI 생태계 구축과 전 국민 AI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경수 후보는 5대 첨단기술 분야 육성 및 정부 주도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

대한다고 봤다.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정부 주도 AI 서비스의 민간 경쟁력 저해 우려, 김경수 후보에 대해선 중세를 통한 경제적 부담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현 가능성에선 김경수 후보가 별 4개로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후보는 별 3개, 김동연 후보는 별 2개를 기록했다. AI는 김경수 후보에 대해 조세부담을 인상(17%→22%)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기금을 조성하는 등 경제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접근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GPU 5만개 확보, AI 단과대학 설립 등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점진적 확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에 대해선 100만 GPU는 현재 전

세계 GPU 생산량의 10%를 점유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이고, 해외 인재 유치에 집중하며 국내 인재 양성 체계가 약한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었다고 봤다. 재원 마련 방안이 부재한 점도 꼽았다.

종합 평가는 이재명, 김경수 후보가 별 4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후보는 별 3개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AI 육성 계획, 김경수 후보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 김동연 후보는 혁신적인 인재 유치 및 안전망 구축 방안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정성욱 기자 saikoku@

345 × 224 mm

▲ 이투데이신문 2025년 4월 18일자 8면

보도내용

AI에 AI 공약 물었더니 이재명·김경수 '★★★★' 김동연 '★★★'

민주당 후보 3인 평가

이재명 "전국민 AI 활용"
AI 단과대학·GPU 5만개 확보
실현 가능성 있지만 재원 물음표

김경수 "민관 AI 투자"
세금 더 걷고 50조원 기금 마련
자금 조달 확실하지만 국민 부담

김동연 "AI 인프라 확충" GPU 100만개 비축 비현실적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선 김경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념 부합성에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AI 관련 공약을 분석한 후 이재명, 김경수 예비후보의 공약에 높은 점수를 줬다.

17일 본지가 생성형 AI ‘퍼플렉시티’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AI 공약을 정리해 분석 및 평가를 맡긴 결과다. 평가 기준은 경제적 효과, 실현 가능성, 민주당 이념 부합성 3가지로 설정했고, AI에 종합 평가 및 별점을 매길 것을 주문했다.

AI는 세 후보의 공약 공통점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AI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세 후보 모두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약의 총론에선 세 후보가 비슷했지만, 각론인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AI는 평가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세 후보 모두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구체적인 자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만큼 가장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이념 부합성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모두의 AI’와 김경수 후보의 정부 주도 혁신이 민주당의 이념적 지향과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준별로 보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선 김동연 후보가 별 5개로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를 앞섰다. AI는 김동연 후보의 강점으로 △과감한 인프라 투자 △혁신적 인재 유치 전략 △선제적 위험 관리를 꼽았다. 과감한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인재 유치, 안전망 구축을 통해 AI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AI 생태계 구축과 전

국민 AI 활용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경수 후보는 5대 첨단기술 분야 육성과 정부의 혁신 위험 부담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봤다.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정부 주도 AI 서비스의 민간 경쟁력 저해 우려, 김경수 후보에 대해선 증세를 통한 경제적 부담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실현 가능성에선 김경수 후보가 별 4개로 선두를 달렸다. 이재명 후보는 별 3개, 김동연 후보는 별 2개를 기록했다. AI는 김경수 후보에 대해 조세부담률 인상(17%→22%)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기금을 조성하는 등 증세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접근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GPU 5만 개 확보, AI 단과대학 설립 등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점진적 확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자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에 대해선 100만 GPU는 현재 전 세계 GPU 생산량의 10%를 점유해야 달성가능한 수치이고, 해외 인재 유치에 집중하며 국내 인재 양성 체계가 약한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봤다. 자원 마련 방안이 부재한 점도 짚었다.

종합 평가는 이재명, 김경수 후보가 별 4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후보는 별 3개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AI 육성 계획, 김경수 후보는 현실적인 자원 마련 방안, 김동연 후보는 혁신적인 인재 유치 및 안전망 구축 방안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4

언론사

주식회사 광주일보사(광주일보)

심의대상기사

광주일보 2025년 4월 14일자 17면 하단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州日報

2025년 4월 14일
17면 (하단)

깨·능·통 깨끗하고 능력있는 통합의 리더

대한민국 대통령
짚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유정복 1차

출생아 수 증가율(%)
(2024.1.-12.기준)

지역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3.6
인천	11.0
대구	7.5
서울	5.3
부산	5.1
충청	5.0
충남	4.5
울산	4.0
경기	3.6

실질경제성장률(%)
(2024년 동기청 공표자료)

지역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4
인천	4.0
대전	3.6
울산	3.2
경북	3.2
제주	3.0
강원	2.7
경남	2.2
광주	1.4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S)9-18.02m

▲ 광주일보 2025년 4월 14일자 17면

제1부

심의를결사체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7
언론사	국민일보 주식회사(국민일보)
심의대상기사	1. 국민일보 2025년 4월 18일자 29면 하단 광고 2. 국민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1면 하단 광고 3. 국민일보 2025년 4월 22일자 28면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민일보
2025년 4월 18일
29면 (오리니안)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문수 ·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본설실장

값 22,000원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리더, 김문수”



김문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화제의 책

대한민국을 위하여

- GTX 최초 제안자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실현
- 임금체불 근절 추진
- 노동양자보호, 민생 중심 정책 추진
- 진보와 보수를 모두 이해하는 통합의 상징

▶▶▶ 좋은 원고나 출판 기획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행복에너지로 문의하세요!
E-mail, ksldata@hanmail.net ☎ 010-3993-6277

(31.4*16.4)cm

▲ 국민일보 2025년 4월 18일자 29면

국민일보 2025년 4월 21일 11면 (종합)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리더, 김문수”

난세의 영웅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문수 ·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

김문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화제의 책

대한민국을 위하여

- GTX 최초 제안자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실현
- 임금체불 근절 추진
- 노동약자 보호, 민생 중심 정책 추진
- 진보와 보수를 모두 이해하는 통합의 상징

값 22,000원

행복에너지 좋은 원고나 출판 기획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행복에너지로 문의하세요!

E-mail, ksldata@hanmail.net ☎ 010-3993-6277 (31.4.16.40cm)

▲ 국민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1면

국민일보 2025년 4월 22일 28면 (종합)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리더, 김문수”

난세의 영웅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문수 ·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

김문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화제의 책

대한민국을 위하여

- GTX 최초 제안자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실현
- 임금체불 근절 추진
- 노동약자 보호, 민생 중심 정책 추진
- 진보와 보수를 모두 이해하는 통합의 상징

값 22,000원

행복에너지 좋은 원고나 출판 기획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행복에너지로 문의하세요!

E-mail, ksldata@hanmail.net ☎ 010-3993-6277 (31.4.16.40cm)

▲ 국민일보 2025년 4월 22일자 28면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8
언론사	주식회사 경기신문사(경기신문)
심의대상기사	1. 경기신문 2025년 4월 21일자 1면 하단 광고 2. 경기신문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하단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경기신문 2025년 04월 21일
월요일 (종합)

대한민국 대통령이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유정복 지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05.9-13.00cm)

▲ 경기신문 2025년 4월 21일자 1면

경기신문 2025년 04월 21일 (월)
종합 01A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유정복 지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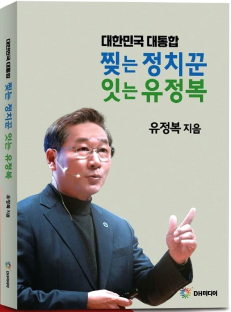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357 X 138 mm

▲ 경기신문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9
언론사	주식회사 경기일보(경기일보)
심의대상기사	1.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하단 광고 2.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자 7면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
04:28 (수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연합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원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 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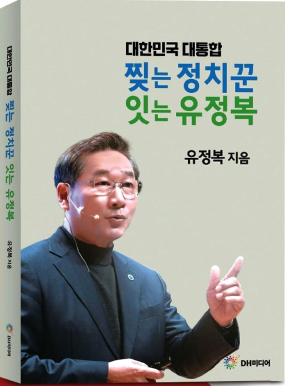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05.9-13.00cm

▲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
07:28 (수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연합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원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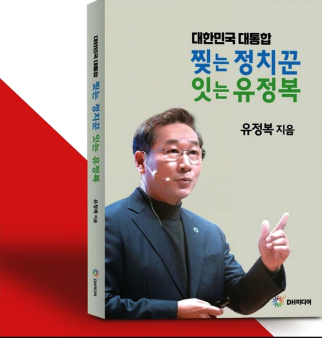
05.9-16.00cm

▲ 경기일보 2025년 4월 21일자 7면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0
언론사	주식회사 경인일보(경인일보)
심의대상기사	1.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2판) 하단 광고 2.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1판)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
이론(종합)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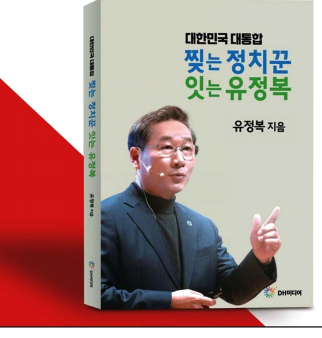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0369-13.83cm

▲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2판)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
이론(종합)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0370-14.33cm

▲ 경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1판)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1
언론사	주식회사 기호일보(기호일보)
심의대상기사	1. 기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1판) 하단 광고 2. 기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2판)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기호일보

2025년 04월 21일
1면 (1802)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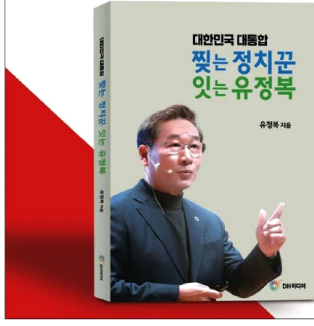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059-13.00cm

▲ 기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1판)

기호일보

2025년 04월 21일 (월)
종합 01A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355 X 129 mm

▲ 기호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2판)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2
언론사	주식회사 대전일보사(대전일보)
심의대상기사	대전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대전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3
언론사	주식회사 매일신문사(매일신문)
심의대상기사	매일신문 2025년 4월 21일자 9면 하단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每日新聞
2025년 04월 21일
9면(하단)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도서관문의 (02-2272-9731)
05.2-18.00cm

▲ 매일신문 2025년 4월 21일자 9면

제1부
심의·의결 사례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4
언론사	주식회사 문화일보(문화일보)
심의대상기사	문화일보 2025년 4월 21일자 31면 하단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문화일보
2025년 4월 21일
31면 (오르디안)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
값 22,000원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

화제의 책

대한민국을 위하여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리더, 김문수”

김문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 GTX 최초 제안자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실현
- 임금체불 근절 추진
- 노동자 보호, 민생 중심 정책 추진
- 진보와 보수를 모두 이해하는 통합의 상징

행복에너지 좋은 원고나 출판 기획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행복에너지로 문의하세요!

E-mail. ksldata@hanmail.net ☎ 010-3993-6277

▲ 문화일보 2025년 4월 21일자 31면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5
언론사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브릿지경제신문)
심의대상기사	브릿지경제신문 2025년 4월 23일자 18면 하단 광고
주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브릿지경제
2025년 04월 23일 18면 (인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김문수 · 김용복 지음 |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가?

난세의 영웅 김문수



김용복 지음

값 22,000원

난세의 영웅 김문수

화제의 책 대한민국을 위하여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한 리더, 김문수”



- GTX 최초 제안자
-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실현
- 임금체불 근절 추진
- 노동자 보호, 민생중심 정책 추진
- 진보와 보수를 모두 이해하는 통합의 상징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제15~17대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18.3*1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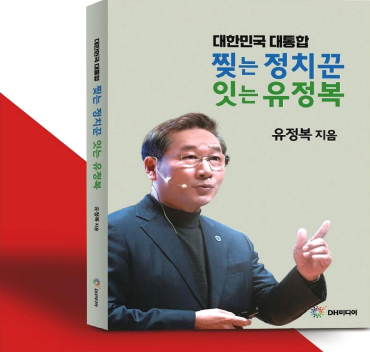
▲ 브릿지경제신문 2025년 4월 23일자 18면

제4부 심의·의결 사례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6
언론사	주식회사 인천일보(인천일보)
심의대상기사	1.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하단 광고 2.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경기판)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
화요일 (음력 3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꾼
찢는 유정복
유정복 지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청(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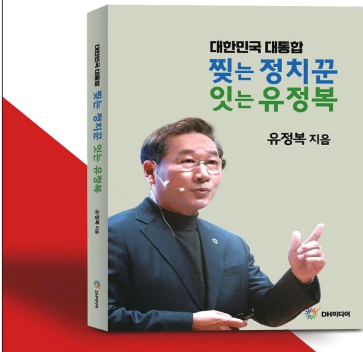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95)P-13.5cm

▲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
화요일 (음력 3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꾼
찢는 유정복
유정복 지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청(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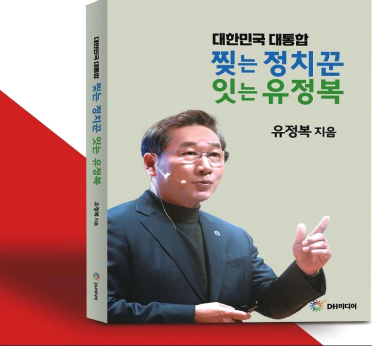
(95)P-14.13cm

▲ 인천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경기관)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7
언론사	주식회사 중부일보(중부일보)
심의대상기사	1. 중부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하단 광고 2. 중부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중부일보

2025년 04월 21일
1면 (종합)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위임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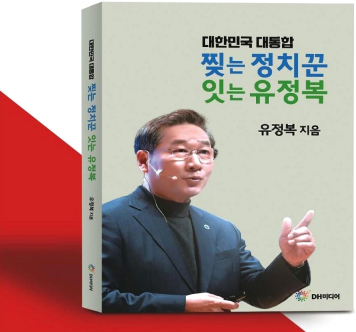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36.4×13.1)cm

▲ 중부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

중부일보

2025년 04월 21일
1면 (종합)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정치인” • 이정현 전 국민위임 당대표
 “인구와 경제 모두 해결한 시장”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 •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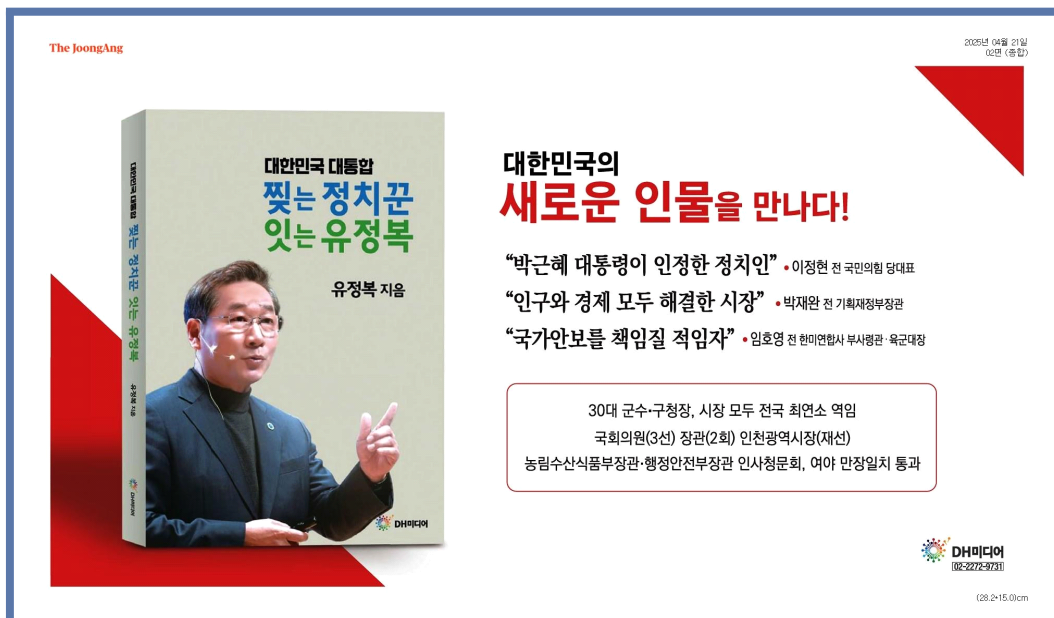
30대 군수·구청장, 시장 모두 전국 최연소 역임
 국회의원(3선) 장관(2회) 인천광역시장(재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만장일치 통과

DH미디어
 도서구입문의 02-2272-9731

(36.2×13.0)cm

▲ 중부일보 2025년 4월 21일자 1면(인천판)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8
언론사	중앙일보 주식회사(중앙일보)
심의대상기사	중앙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 중앙일보 2025년 4월 21일자 2면

4. 권고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19
언론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경향신문)
심의대상기사	경향신문 2025년 4월 25일자 26면 하단 광고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저술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p>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항,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견광고 및 상업광고의 제한)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경향신문

2025년 4월 25일자 26면 (오르디너)

세기는 지금 트럼프를 비롯한 스트롱맨 시대!

트럼프 2.0 시대와 스트롱맨들
트럼프·푸틴·사진핑·모디·에르도란의 시대

‘소년공’ 이재명은 어떤 책들을 읽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헤쳐왔는가?
— 이재명을 만든 100권의 책들 —

이재명의 서재

‘이재명 서재’에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본 이재명 제대로 읽기!!

이 책은 단순한 정치인의 독서 일지가 아니다.
그의 책장은 백 권의 책이 아닌,
백 개의 인생이다.

이재명 저 | 신국판 | 400쪽 | 2도 인쇄 | 값 22,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이재명 저 | 신국판 | 25도 인쇄 | 392쪽 | 값 22,000원

슈퍼맨이 된 스트롱맨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재명 저 | 신국판 | 25도 인쇄 | 392쪽 | 값 22,000원

05-9-18-50cm

▲ 경향신문 2025년 4월 25일자 26면

5. 안내문 송부

의결번호	제21대 대선-자심22
언론사	주식회사 이투데이(이투데이신문)
심의대상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투데이신문 2025년 4월 25일자 6면 「불리한 질문엔… 말흐리고, 돌리고, 포장하고, 받아친다」 제하의 기사2. 이투데이신문 2025년 5월 16일자 4면 「李 ‘안정적 리더’ … 金 ‘기득권 탈피’ … 李 ‘젊은 전문가」 제하의 기사3. 이투데이신문 2025년 5월 20일자 6면 「이재명 “경제 활력 최우선” 김문수 “규제 풀어 고용창출”」 제하의 기사4. 이투데이신문 2025년 5월 23일자 6면 「이재명 ‘무대 포옹’ 김문수 ‘과잉 칭찬’ 이준석 ‘미소·경청」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안내문 송부 조치한다.
이 유	<p>위 언론사는 인공지능(생성형 AI)을 활용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어휘와 표현, 몸짓과 표정, 복장, 연설 방식, 무대 구성, 발언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한 보도를 연속적으로 게재하였다.</p> <p>심의대상기사는 주목도 높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이나 공약 외에도 후보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이자 독창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다만, 심의대상기사에서 다룬 요소들은 평가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석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하면서 해당 평가에 사용된 구체적인 지표, 기준, 질문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어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p> <p>심의대상기사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였거나, 그로 인해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어려운 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본 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p> <p>그러나 선거보도는 경미한 내용이라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언론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노력과 책임이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언론 보도 기법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용과 형식이 균형을 갖춘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기로 한다.</p>

불리한 질문에... 말하려고, 돌리고, 포장하고, 받아친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왕이 될 상인가

국힘 4인 말-제스처 AI 분석

김문수 '빠져나갈 여지' 남기고
안철수 5초간 열린 미소로 끄덕
한동훈 공격받은 영웅 서사 조성
홍준표 격양된 내용 느긋하게 툭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공격적 질문'을 받았을 때 '인 4석'의 각기 다른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본지가 OpenAI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g3'을 통해 후보 4인(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가나다순)이 곤란하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구사한 어휘나 표현, 몸짓과 표정 등을 분석해봤다. AI는 각 후보가 '구체성 희석'(김문수), '회제 전환'(안철수), '재해석'(한동훈), '역질문'(홍준표)이란 각기 다른 방식의 방어 전략을 구사했

다고 평가했다. 전날(23일)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서 나온 질문과 그에 따른 각 후보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뜻을 표하느냐는 앞으로 좀 보겠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탄핵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의향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I가 분석한 김문수 후보의 방어 전략은 '구체성 희석'이다. 김 후보는 '대국민 사과'란 명확한 요

구를 '무엇'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대체했다. AI는 "(김 후보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100% 열어두어서 검증은 회피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화법은 "듣는 쪽에선 '뭔데 해준다니 좋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먼저 느끼게 하지만, 정적 검증 가능한

국민의힘 경선후보 4인 방어 전략 * 28일 미디어데이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 사본식

	김문수 후보 '모호'	안철수 후보 '회제전환'	한동훈 후보 '재해석'	홍준표 후보 '역질문'
질문	"탄핵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의향 있느냐?"	"정당 옮기는 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토론 상대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현직수 지지 세력을 어떻게 보나?"
대답	"국민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제가 노력해서 여당 됐다. 고마워해 달라."	"유력하다는 방증이다."	"그 사람들 다 민주당 어나?"
분석	모호한 단어로 답하며 압박 완화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로 전환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질문자를 역공해 논쟁 축소
				
제스처	특징적인 제스처 없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임	특징적인 제스처 없음	대화의 속도 외 톤이 일정
분석	-	긍정적인 인상 주며 불쾌감 완화	-	신뢰성과 안정감 확보 전략

약속이 없어 (김 후보 입장에선) 빠져나갈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AI는 평가했다.

"제가 노력 (후보 단일화) 해서 우리 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한 고마운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예비후보에선 '이 정당, 저 정당을 옮겨다녔다'는 지적이 남아들었다. 과거 국민의당 새누리당 당권 등 당적 변경이 잦았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맞섰다.

AI는 안 후보의 답변에 '회제 전환' 전략이 녹아 있다고 봤다. AI는 "(안 후보가) 대화의 논점을 '당 이동여부'에서 '나의 성과'로 이동시켰다"며 "단일화를 통한 여당 창출'이란 성과를 내세우며 자기 효능을 부각했고, 반대로 '당적 변경'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희석시켰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답변 말미 5

초 동안 열린 미소를 보였고, 미세하지만 고개도 수차례 끄덕였다. AI는 이를 두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스스로의 논리를 강화했고 미소를 지어보며 '내 말이 맞지?'와 같은 자기확신을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공격적이고 친화적인 제스처로 '불쾌감을 완화했다'는 게 AI의 평가다.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TV 토론 상대로 가장 많이 지목받았다'는 질문에 한동훈 예비후보가 한 대답이다. AI는 한 후보의 '재해석 능력'에 주목했다. AI는 한 후보가 '이런까' '상당' (상대 후보들의 집중된 견제)를 '훈장' (유력한 대선 후보)으로 재해석해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한 후보가 "내가 공격받는 것은 능력·영향력·경쟁성이 크니까

말'이라는 논리를 펼쳐 빠르게 질문의 의

도를 전복시켰기 때문에 공격 강도를 낮추고 무력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이러한 방어 전략은 특히 '팬덤과 열성 지지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AI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공격받은 영웅'이라는 서사를 제시하면 팬덤은 단결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부 민주당 사람들 아니냐?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당 잘 되려고 모임을 결성했을까? 회장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홍준표 예비후보는 '현직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세력(모임)'이 있다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질문의 의도가 홍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홍 후보의 선택은 '반문' 전략이었다고 AI는 분석했

다. AI는 홍 후보가 되레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연이어 던져

논쟁 공간을 좁혔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론 민주당의 체력'이라는 본인의 압축적 결론을 주입하고 있어 반격이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봤다.

AI는 홍 후보의 '느릿한 말 속도'도 중요한 분석 요소로 봤다. AI는 홍 후보가 평균 대화 속도(약 180 wpm, 분당 단어 수)보다 10~15% 느리게 답변을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역질문을 통해) 격양된 내용을 말하면서 대화의 속도와 톤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는 침착하다'는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속·저음 발화는 '지식이 많다, 경험이 있다'는 인상을 뒤 싹득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기자 silverash@
04-9-28-7300

▲ 이투데이신문 2025년 4월 25일자 6면

불리한 질문엔... 말하려고, 돌리고, 포장하고, 받아친다

[왕이 될 상인가]

국힘 4인 말·제스처 AI 분석

김문수 ‘빠져나갈 여지’ 남기고
안철수 5초간 열린 미소로 끄덕
한동훈 공격받는 영웅 서사 조성
홍준표 격양된 내용 느긋하게 특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공격적 질문’을 받았을 때 ‘4인 4색’의 각기 다른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본지가 OpenAI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o3’를 통해 후보 4인(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가나다순)이 곤란하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구사한 어휘나 표현, 몸짓과 표정 등을 분석해봤다. AI는 각 후보가 ‘구체성 희석’(김문수), ‘화제 전환’(안철수), ‘재해석’(한동훈), ‘역질문’(홍준표)이란 각기 다른 방식의 방어 전략을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전날(23일) 국민의힘 ‘미디어데이’에서 나온 질문과 그에 따른 각 후보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뜻을 표하느냐는 앞으로 좀 보겠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탄핵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I가 분석한 김문수 후보의 방어 전략은 ‘구체성 희석’이다. 김 후보는 ‘대국민 사과’란 명확한 요구를 ‘무엇’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대체했다. 구체적 사과 시점과 형식도 못 박지 않았다. AI는 “(김 후보가)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100% 열어둠으로써 검증을 회피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화법은 “듣는 쪽에선 ‘뭐든 해준다니 좋다’는 긍정적 정서를 먼저 느끼게 하지만, 정작 검증 가능한 약속이 없어 (김 후보 입장에서) 빠져나갈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AI는 평가했다.

“제가 노력(후보 단일화)해서 우리 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한 고마운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예비후보에겐 ‘이 정당, 저 정당을 옮겨다녔다’는 지적이 날아들었다. 과거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등 당적 변경이 잦았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맞섰다.

AI는 안 후보의 답변에 ‘화제 전환’ 전략이 녹아 있다고 봤다. AI는 “(안 후보가) 대화의 논점을 ‘당 이동 여부’에서 ‘나의 성과’로 이동 시켰다”며 “‘단일화를 통한 여당 창출’이란 성과를 내세우며 자기효능을 부각했고, 반대로 ‘당적 변경’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희석시켰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답변 말미 5초 동안 열린 미소를 보였고, 미세하지만 고개도 수차례 끄덕였다. AI는 이를 두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스스로의 논리를 강화했고 미소를 지어보여 ‘내 말이 맞지?’와 같은 자기확신을 표출했다”고 분석했다.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제스처로 “불쾌감을 완충했다”는 게 AI의 평가다.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TV토론 상대로 가장 많이 지목받았다”는 질문에 한동훈 예비후보가 한 대답이다. AI는 한 후보의 ‘재해석 능력’에 주목했다. AI는 한 후보가 “이른바 ‘상처’(상대 후보들의 집중된 견제)를 ‘훈장’(유력한 대선 후보)으로 재해석해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한 후보가 “‘내가 공격받는 것은 능력·영향력·정당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쳐 빠르게 질문의 의도를 전복시켰기 때문에 공격 강도를 낮추고 무력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이러한 방어 전략은 특히 ‘팬덤과 열성 지지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AI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공격받는 영웅’이라는 서사를 제시하면 팬덤은 단결을 강화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부 민주당 사람들 아니던가?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당 잘 되라고 모임을 결성 했을까? 휘방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홍준표 예비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 하는 세력(모임)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질문의 의도가 홍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홍

후보의 선택은 ‘반문’ 전략이었다고 AI는 분석했다. AI는 홍 후보가 되레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연이어 던져 논쟁 공간을 좁혔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로 ‘민주당의 휘방’이라는 본인의 암묵적 결론을 주입하고 있어 반격이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봤다.

AI는 홍 후보의 ‘느릿한 말 속도’도 중요한 분석 요소로 봤다. AI는 홍 후보가 평균 대화 속도(약 180wpm, 분당 단어 수)보다 10~15% 느리게 답변을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역질문을 통해) 격앙된 내용을 말하면서도 말의 속도와 톤을 일정하게 유지해 ‘나는 침착하다’는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속·저음 발화는 ‘지식이 많다, 경험이 있다’는 인상을 쥐 설득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李 '안정적 리더'... 金 '기득권 탈피'... 李 '젊은 전문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후보 3인 유세북·무대 분석해보니



유세북 유형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어떻게 읽었나?	활동성 있는 비범함이 점퍼, 운동화 + 생탄복 (상의) 배색 없이 파란색 단색 (신발) 빨강·하양·파랑 조합, 파란색 신발끈으로 포인트	캐주얼한 야구 유니폼 흰 바탕에 소매에만 빨강 배색 배치	와이셔츠, 정장 바지 하얀 상의
핵심 효과 (사 분석)	- 정당 색 전반에 배치해 지지층에 안정적 이미지 - 비범함을 '복을 걸고 뛰는 사람'이란 연대감 형성, 지지층 결집 효과	- 정당 색 최소화, '당 기득권과 선 곳'기 - 스포츠복 계열 입어 권위주의와 보수 엘리트 이미지 탈피	- 정당 색 완전히 배제, 걸치레보다 정채 등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진정성 호소 - 단정함 상징 차림으로 전문성·책임감 부각
무대 구성 및 연출 포인트	적당한 거리 유지, 최단선 등 활용, 후보 및 시민 안전 확보	'자랑' 들을 무대로 나와 연출, 지지자들과 악수 스킨십	시민들끼리 '반딧불 열기'
핵심 효과 (사 분석)	- '대규모 군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인상 부여 - 다만 물리적·시각적 장벽이 심리적 간격 확대	- 시간·신체 집중을 가능하게 해 심리적 장벽 최소화 - '활동적이고 실감나는' 이미지 부각	- '젊고 다짐된 친척, 생방송 스톤 가능한 인물'로 각인 - 동료나 친구 같은 수평적 관계 강조

▲ 왕이 될 상인가

후보 3인 유세북·무대 시 분석

대선주자들의 옷차림은 단순 패션이 넘어 '메시지 전달 도구'로 여겨진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 주요 후보들의 유세 복장, 연출 방식, 무대 구성에는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다.

15일 본지가 오픈AI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o3'을 통해 주요 대선 후보 3인(이재명·김문수·이준석, 기호 순)의 옷차림과 유세 방식에 녹여있는 메시지·전략을 분석했다. AI는 후보 3인의 유세북에 '안정적 리더' (이재명), '기득권 탈피' (김문수), '젊은 전문가' (이준석)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무대 구성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와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파란 운동화, 하얀 야구복, 정장 셔츠... 대선 후보의 유세북이 '정치적 정체성', '유권자 설득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AI는 봤다. 특히 '색조합'에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밝은 배색 없는 파란(민주당 상징색) 바림락이 점퍼를 유세복으로 택했다. '동화 뿔장'을 뜻하는 붉은 계열이 일부 섞이긴 했지만, 운동화 역시 옅고와 신발끈을 파란색으로 '깔맞춤'하는 정성도 보였다. AI는 "정권 교체론"을 강조하는 민주당 후보가 파란색을 넓게 배치한 것은 기존 권력과 차별화하려 한다는 시각적 선긋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 '정당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지지층에 안정적 이미지로 다가갈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도층의 경우 '정당 색이 너무 강하게 표출되면 타협보다는 '당 명령'을 우선할 거란 고정관념이 생겨 후보의 유연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세 첫날 이재명 후보가 '흰 방탄복'을 입은 모습은 한 차례 화제가 됐다. AI는 "복을 걸고 뛰는 사람"이라는 감정적 연대를 형성해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딱'은 하얀 야구 유니폼이었다. 흰색 바탕에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이 소매 부분에 배치됐다. AI는 '핵심 지지층이 바로 알아볼 수

이재명, 파란색 바림락이 점퍼 흰 방탄복, 감정적 연대 효과 노려 '기존 권력과 달라' 시각적 선긋기

김문수, 하얀 야구 유니폼 택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젊음 어필 권위적·보수 엘리트 이미지 변화

이준석, 흰색 셔츠에 정장 바지 당 상징 주황색 과감히 벗어던져 걸치레보다 정책 등 책임감 부각

있을 만큼의 색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립을 상징하는 색(흰색)으로 바꿔달라"며 "시각적으로 나는 기존 당 기득권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70대에도 캐주얼한 야구 유니폼을 입어 젊어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했다"며 "권위주의와 보수 엘리트 이미지를 탈피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황색' (당

상징색) 유세복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그는 유세 무대에 오를 때 주로 하얀색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즐겨입었다. AI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오히려 단정함 정장 형식의 복장을 유지해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덧입혔다"고 평가했다. 가벼운 걸치레보다 정책 등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진정성을 호소했다는 분석이다.

유세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AI는 '무대 구성', '퍼포먼스'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준석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친근감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색적인 '반딧불이 열기'가 큰 역할을 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이준석 후보는 서늘한 정계장에서 시민들을 배려하는 '선긋기'를 했다. 야간 유세였던 만큼 시민들은 다 같이 휴대전 폰을 꺼 주의를 당부했는데, AI는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시민들이 후보를 둘러싼 친구와 같은 수평적 관계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휴대전 폰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젊고 디지털 친화적이며 생생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며 "공동체적 경향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참어머님"이라고

대가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시가 주목한 건 '거리감'이었다. 경호 및 안전성 이유로 그의 무대엔 후보-지지자 간 차단선이 가끔 설치되곤 했다. 또 연설문 낭독은 미리 설치된 연설대 뒤에서 이뤄졌다. AI는 "지지자 및 시민들과의 거리 유지는 '대규모 군중'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책임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물리적·시각적 장벽이 심리적 간격을 확대한다"고 진단했다. 유권자들이 후보로부터 '친근한 인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자랑" 들을 무대로 이용해 지지자들과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주고받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들쭉날 구간 쪽으로 걸어나와 연설을 하거나, 야간 바로 앞에 자리잡은 지지자의 손을 잡아주는 등 무대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AI는 "시간·신체 집중을 가능하게 해 심리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평가했다. 또 "신박·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지지층 결속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각보다 활동적이고 상가운 인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김문수 기자 silverash@

추 '안정적 리더' ... 김 '기득권 탈피' ... 추 '젊은 전문가'

[왕이 될 상인가]

후보 3인 유세복·무대 시 분석

이재명, 파란색 바람막이 점퍼

흰 방탄복, 감정적 연대 효과 노려
'기존 권력과 달라' 시각적 선긋기

김문수, 하얀 야구 유니폼 택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젊음 어필
권위적·보수 엘리트 이미지 변화

이준석, 흰색 셔츠에 정장 바지

당 상징 주황색 과감히 벗어던져
겉치레보다 정책 등 책임감 부각

대선주자들의 옷차림은 단순 패션을 넘어 '메시지 전달 도구'로 여겨진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 주요 후보들의 유세 복장, 연설 방식, 무대 구성에는 구석구석 의미가 드러나 있다.

15일 본지가 OpenAI의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o3'를 통해 주요 대선 후보 3인(이재명·김문수·이준석, 기호순)의 옷차림과 유세 방식에 녹아있는 메시지·전략을 분석했다. AI는 후보 3인의 유세복에 '안정적 리더'(이재명), '기득권 탈피'(김문수), '젊은 전문가'(이준석) 이미지가 담겨있다고 진단했다. 또

무대 구성과 퍼포먼스 측면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와 가장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파란 운동화, 하얀 야구복, 정장 셔츠... 대선 후보의 유세복에 '정치적 정체성', '유권자 설득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AI는 짚었다. 특히 '색조합'에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별다른 배색 없는 파란(민주당 상징색) 바람막이 점퍼를 유세복으로 택했다. '중도 확장'을 뜻하는 붉은 계열이 일부 섞이긴 했지만, 운동화 역시 앞코와 신발끈을 파란색으로 '깔맞춤'하는 정성도 보였다. AI는 "정권 교체론을 강조하는 민주당 후보가 파란색을 넓게 배치한 것은 '기존 권력과 명백히 다르다'는 시각적 선긋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당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지지층에 안정적 이미지로 다가갈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도층의 경우 "정당 색이 너무 강하게 표출되면 타협보다는 '당 명령'을 우선할 거란 고정관념이 생겨 후보의 유연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세 첫날 이재명 후보가 '흰 방탄복'을 입은 모습은 한차례 화제가 됐다. AI는 "묵숨 걸고 뛰는 사람"이라는 감정적 연대를 형성해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픽'은 하얀 야구 유니폼이었다. 흰색 바탕에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은 소매 부분에만 배치됐다. AI는 "핵심

지지층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색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립을 상징하는 색 (흰색)으로 비워냈다”며 “시각적으로 ‘나는 기존 당 기득권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70대임에도 캐주얼한 야구 유니폼을 입어 젊어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했다”며 “권위주의와 보수 엘리트 이미지를 탈피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주황색’(당 상징색) 유세복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그는 유세 무대에 오를 때 주로 하얀색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즐겨입었다. AI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오히려 단정한 정장 형식의 복장을 유지해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덧입혔다”고 평가했다. 가벼운 걸치레보다 정책 등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진정성을 호소했다는 분석이다.

유세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AI는 ‘무대 구성’, ‘퍼포먼스’ 등을 분석한 결과, 이준석 후보가 유권자들에 가장 친근감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색적인 ‘반딧불이 셀카’가 큰 역할을 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이준석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다. 야간 유세였던 만큼 시민들은 다 같이 휴대폰 플래시 기능을 켜 주변을 밝혔는데, AI는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시민들이 후보를 동료나 친구와 같은 수평적 관계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휴대폰 기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젊고 디지털 친화적이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란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며 “공동체 경험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참여·흥미·연대감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AI가 주목한 건 ‘거리감’이었다. 경호 및 안전상 이유로 그의 무대엔 후보-지지자 간 차단선이 가끔 설치되곤 했다. 또 연설문 낭독은 미리 설치된 연설대 뒤에서 이뤄졌다. AI는 “지지자 및 시민들과의 거리 유지는 ‘대규모 군중’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책임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물리적·시각적 장벽이 심리적 간격을 확대한다”고 진단했다. 유권자들이 후보로부터 ‘친근한 인간미’를 느낄 가능성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T자형’ 돌출 무대를 이용해 지지자들과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주고받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돌출된 구간 쪽으로 걸어나와 연설을 하거나, 무대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지지자의 손을 잡아주는 등 무대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AI는 “시각·신체 접촉을 가능하게 해 심리적 장벽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신뢰·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지지층 결속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각보다 활동적이고 살가운 원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보도내용

이재명 “경제 활력 최우선” 김문수 “규제 풀어 고용창출”

[킹스피치 해례본]

TV토론 발언 패턴과 전략 의도

李, 경제·국익 균형적 시각

AI 등 신성장산업 육성 비전 제시

실리외교·중도 실용 구축 주력

金, 친기업 활동 촉진 강조

한미동맹 강화로 보수 결집 노력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책도 제시

이준석, 세대교체 이미지 어필

中 부상 경계심·이재명 정책 비판

예리한 공략 토론 스타일 선보여

권영국 ‘진보적 의제’ 중점

불평등 해소 문제 등 제시 명확

경제성장 구체적 해법 없어 한계

정치인의 말이 전파되는 선거 현장 유세, TV 토론회 등은 대선 주자들의 언어가 가감 없이 생중계되는 드문 기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본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대선 과정에서 주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수를 전수 분석한 내용을 전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여러 번이면 의도’라는 관점에서 주자들의 말 속에 담긴

정치경제적 세계관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코너를 마련했다.

대선 주자들의 단어 빈도수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포섭’, 김문수 후보는 ‘지지층 결집’, 이준석 후보는 ‘논리적 접근 차별화’, 권영국 후보는 ‘진보 가치 표현’에 주력했음을 보여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간 첫 TV토론 결과에 대해 AI는 토론회 총평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안정적 토론으로 중도층에 대한 포섭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집토끼’인 기존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이준석 후보는 논리적 접근과 상대 논리 비판으로 타 후보들과 차별화됐다고 봤다. 권영국 후보는 진보적 가치 표현에 주력, 제한적 지지층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19일 본지가 생성형 AI 클로드를 기반으로 전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각 후보가 사용한 단어의 빈도와 토론 수행 평가를 실시해 발언 패턴과 전략적 의도를 분석한 결과다.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단어와 프레임을 통해 각 후보의 정치적 지향점과 선거 전략을 파악해봤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경제성장’을 12회, ‘국익’을 8회, ‘한미동맹’을 7회, ‘중국’을 6회 언급해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실리주의적 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중도 실용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재생에너지’, ‘첨단산업·AI’, ‘문화 산

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 전문성 이미지를 내세운 것으로 평가됐다.

AI는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국익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했다고 봤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극단화시키지 말라"는 등 '극단적·극단화' 표현을 8회 언급하며 방어적 태도로 구체적 반박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강점으로는 경제·국익에 대한 균형적 시각과 분배·성장을 함께 강조하는 포용적 경제정책 등이 꼽혔다. 약점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호텔 경제학' 비판에 다소 방어적 대응, 대북 사업 의혹 해명 미흡, 재원 마련 방안 구체성 부족 등이 언급됐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9회), '기업'(8회), '규제'(7회)를 자주 언급하며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한미동맹'(6회), '트럼프'(5회), '신뢰'(5회)도 강조하며 강한 한미동맹 등 전통적인 보수 가치를 강조했다. '소상공인'(4회), '금융지원'(2회)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책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의 발언 패턴은 친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메시지에 집중하며 보수층 결집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와의 '신뢰' 관계를 부각시키며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질문에는 대응에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고 봤다. 김 후보의 강점으로는 명확한 친기업 정책과 보수 가치의 일관성을 꼽았다. 약점으로는 내란 사태 관련 공격 대응 부족, 경기도지사 성과 부각 미흡, 중도층 설득력 등이 언급됐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8회), '성장'(7회), '과학

기술'(4회), '생산성'(4회) 등을 핵심어로 활용하며 실력 중심 접근법을 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을 8회나 언급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했고, '풍력발전'(3회), '데이터센터'(3회), '에너지저장장치(ESS)'(2회)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AI는 이준석 후보가 논리적이고 상대의 약점을 예리하게 공략하는 토론 스타일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젊은 후보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기반 접근법을 강조하며 세대교체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펼쳤다는 평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과 풍력발전 정책을 지적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논리적 접근과 전문성 과시는 강점으로, 일부 비판 치중과 자신의 정책 비전 설명 부족 등은 약점으로 꼽혔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7회), '노동자'(6회), '트럼프'(6회), '차별'(4회), '내란'(4회) 등의 단어를 통해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해소 등 진보적 의제를 최우선 가치로 선명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다. 그는 '노동자'(6회), '최저임금'(2회)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씨'(7회), '내란'(4회) 언급을 통해 현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트럼프'(6회), '관세'(5회), '맞서다·싸우다'(2회) 등을 통해 대미 종속적 관계를 비판했다.

AI는 권 후보가 불평등 해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했으나 실질적 협상 전략은 모호하다고 봤다. 권 후보가 내란·불평등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낸 점은 강점으로, 경제 성장의 구체적 해법 부재와 투쟁적 이미지로 중도층 설득에 제한적인 점은 약점이라고 봤다.

이재명 '무대 포옹' 김문수 '과잉 칭찬' 이준석 '미소·경청'

왕이 될 상인가

포섭·설득 능력 AI 분석

빅데이터와 단일화 문제기 대선 막판 이슈로 부상하면서 각 후보의 '포용력'이 시합대에 올랐다. 후보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포섭·설득 능력을 인공지능(AI)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22일 본지는 오픈AI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 'o3'를 통해 주요 대선 후보 3인(이재명·김문수·이준석, 기호순)이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야 할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분석했다. 상대편을 설득할 때의 표정과 제스처, 화법, 대화장소 선택 등을 분석 요소로 삼았다.

시는 각 후보를 '무대 힘으로 편에 세우는 사람'(이재명), '칭찬으로 끌어들이는 사람'(김문수), '상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준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퍼포먼스형, 교감은 짧은 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포용력이 대중에게 가장 명확히 각인됐던 순간은 유세지랑에 올랐을 때였다. 이 후보는 지역 유세 과정에서 어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발단한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불러 자신의 통합 행보가 무르익고 있음을 대중에 알렸다.

AI는 이재명 이 후보가 보수진영 인물 영입을 공식화하는 장소로 유세자를 선택한 점에 대해 "군중 앞 환영 퍼포먼스로 의연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일반 대중이 자라한 열린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지지를 '상대'를 당당히 품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게 AI 분석이다. 첫 대안의 순간도 주목했다. 이 후보는 무대 위로 올라온 김 의원의 손을 끌어 포옹하고 등을 두드리며 "잡겠어"라고 격려했는데, 이에 대해 AI는 "스킨십으로 심리적 거리를 급속히 좁혔다"며 긍정적으로 보았다.

다만 직후 이 후보가 김 의원과 악수를 하는 도중에도 시선과 몸의 방향은 정중을 향해 있었던 점 등에서 "형식적 환영에 가깝게 보일 수 있다"며 "시선은 주로 정중을 뒤 상대와의 직접 교감을 줬다"

AI가 분석한 후보별 포섭 포인트

상황	반대 진영 소속이었던 인물을 영으로 영입	상황	한번 거절당한 상대에게 단입과 리브를	상황	자신을 설득하러 온 자를 잘 타이르기
장소	유세지랑 위	장소	공적 행사장	장소	대학 캠퍼스 내 야외 테일룸
효과	군중 앞에서 외연 확장	효과	연문·행사 관계자 있는 자리인 만큼 상대편에 심리적 압박	효과	자연관 아래서 '화해' 분위기 조성
표정·제스처	적극적 포옹, 시선은 군중에	표정·제스처	적극적인 손짓	표정·제스처	상대편에 기본 울, 미소 유지
효과	스킨십으로 심리적 거리 축소, 시선 처리로 인해 직접 교감은 들쭉날쭉	효과	'숨기는 게 없다'는 메시지로 진정성 부각	효과	수용적 태도 강조
화법	"기분 스피치 한번 하시죠"	화법	"MVP는 이준석"	화법	"하심찬의 편에게 말하자"
효과	지치음 호소로 병점	효과	연속된 칭찬으로 감정적 호소	효과	인간관 요구를 편히 대화로 프래임 전환

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이 "기분 스피치 한번 하시죠"라고 권유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에게 김 의원을 소개했다"는 대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와의 직접 교감이 들쭉날쭉하다"고 보았다.

◇김문수: 칭찬 화법, 공개적 압박 = 보수 진영에선 '단입화 공방'의 두 당사자가 공개 석상에서 대립하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단 앞에 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단입화 리브를'을 거부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재차 공개 구애를 보냈다. 토론화장은 이 후보만 애, 좌측 화제인과 행사 관계자들이 착석해 있었다.

AI는 김 후보가 "공개석과 현장 열기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상대방 입장에선 거듭 거절하면 '협박 화법' 이미지를 감수해야 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을

이재명, 퍼포먼스로 외연 넓혀 상대와의 직접 교감은 들쭉날쭉

김문수, 감정적 호소로 친화전파 '단입화 리브를' 공개적으로 압박

이준석, 상대 발언 수용태도 보여 '햇빛 아래 화해' 대담함 강조도

것"이라고 보았다. AI가 특히 주목한 건 발언 내용이었다. 김 후보가 "과잉 칭찬"이란 설득 화법을 구사했다고 분석했다.

AI는 이 후보의 "경청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처음 안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서 착석할 때 상대를 상대편 쪽으로 많이 기울였는데, 이를 두고 AI는

호소에 집중하는 친화 전략을 썼다"는 게 AI의 분석이다. 오른쪽 손을 꼭 껴 붙인 내내 적극적인 몸짓을 한 점은 "내가 숨기는 게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진정성을 부각했다"고 보았다.

◇이준석: 미소 유지, 대담함 강조 = 이준석 후보는 한때 '악수' 관계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마주 보고 앉았다. '단입화 시월단'을 지지한 안 의원이 이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21일 직접 그의 유세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 후보 입장에선 최근 겨우 개선된 상대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는 포섭과 설득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

AI는 이 후보의 "경청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처음 안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서 착석할 때 상대를 상대편 쪽으로 많이 기울였는데, 이를 두고 AI는

"상대 발언을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까운 거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아이컨택을 지속한 점, 대화 내내 미소를 유지한 점 등에도 높은 점수를 평점을 부여했다. 두 사람은 가천대 캠퍼스 내 야외 테일룸에서 마주 보고 대화했다. AI는 "자연관 아래는 정소는 '새 줄'과 '화해'를 뜻하는 상징적 무대"라며 "과거 양측이 미지근 '햇빛 아래 화해'라는 서사로 전환하는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정 후보의 당사자나 캠프 사무실이 아닌, 관점에서 '말'이 대중성을 얻었다"고도 했다.

또 이 후보는 "3년 전 많은 일이 있었다. (그때서 안 의원과)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AI는 "단입화'로 프래임 전환에 새틀게 편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이재명 '무대 포옹' 김문수 '괴잉 칭찬' 이준석 '미소·경청'

[왕이 될 상인개]

'포섭·설득 능력' AI 분석

이재명, 퍼포먼스로 외연 넓혀
상대와의 직접 교감은 들쭉날쭉

김문수, 감정적 호소로 친화전략
'단일화 러브콜' 공개적으로 압박

이준석, 상대 발언 수용태도 보여
'햇빛 아래 화해' 대등함 강조도

빅텐트와 단일화 문제가 대선 막판 이슈로 부상하면서 각 후보의 '포용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후보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포섭·설득 능력을 인공지능(AI)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22일 본지는 오픈AI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 'o3'를 통해 주요 대선 후보 3인(이재명·김문수·이준석, 기호순)이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야 할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분석해봤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의 표정과 제스처, 화법, 대화 장소 선택 등을 분석 요소로 삼았다.

AI는 각 후보를 '무대 힘으로 편에 세우는 사람'(이재명), '칭찬으로 끌어당기는 사람'

(김문수), '상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준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퍼포먼스형, 교감은 짧은 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포용력이 대중에 가장 명확히 각인됐던 순간은 유세차량에 올랐을 때였다. 이 후보는 지역 유세 과정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을 무대 위로 올려 자신의 통합 행보가 무르익고 있음을 대중에 알렸다.

AI는 이처럼 이 후보가 보수진영 인물 영입을 공식화하는 장소로 유세차를 선택한 점에 대해 "군중 앞 환영 퍼포먼스로 외연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일반 대중들이 자리한 열린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지지층에 '상대를 당당히 품었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게 AI 분석이다. 첫 대면의 순간도 주목했다. 이 후보는 무대 위로 올라온 김 의원의 손을 끌어 포옹하고 등을 두드리며 "잘했어"라고 격려했는데, 이에 대해 AI는 "스킨십으로 심리적 거리를 급속히 좁혔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직후 이 후보가 김 의원과 악수를 하는 도중에도 시선과 몸의 방향은 청중을 향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형식적 환영에 가깝게 보일 수 있다"며 "시선은 주로 청중에 뒤 상대와의 직접 교감은 짧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에게 "1분 스피치 한번 하시죠"라고 권유한 점 등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에게 김 의원을 소개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와의

직접 교감이 들쭉날쭉하다”고 봤다.

◇김문수: 칭찬 화법, 공개적 압박 = 보수 진영에선 ‘단일화 공방’의 두 당사자가 공개 석상에서 딱하니 대면하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단 앞에 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단일화 러브콜’을 거부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재차 공개 구애를 보였다. 토론 회장엔 이 후보뿐 아니라 취재진과 행사 관계자들이 착석해 있었다.

AI는 김 후보가 “공개성과 현장 열기를 극대화 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상대방 입장에서선 거듭 거절하면 ‘협력 회피’ 이미지를 감수해야 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AI가 특히 주목한 건 발언 내용이었다. 김 후보가 “과잉 칭찬”이란 설득 화법을 구사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회 MVP는 이준석”, “고생 끝 대성공을 터트렸다”와 같은 발언으로 이 후보를 추켜세웠는데, “논리보다는 감정적 호소에 집중하는 친화 전략을 썼다”는 게 AI의 분석이다. 오른쪽 손을 짝 펴 발언 내내 적극적인 몸짓을 한 점은 “내가 숨기는 게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진정성을 부각했다”고 봤다.

◇이준석: 미소 유지, 대등함 강조 = 이준석 후보는 한때 ‘양숙’ 관계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마주보고 앉았다. ‘단일화 사절단’을 자처한 안 의원이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21일 직접 그의 유세 현장을 찾은 것

이다. 이 후보 입장에서선 최근 겨우 개선된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는 포섭과 설득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

AI는 이 후보의 ‘경청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처음 안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착석할 때 상체를 상대방 쪽으로 많이 기울였는데, 이를 두고 AI는 “상대 발언을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가까운 거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아이컨택을 지속한 점, 대화 내내 미소를 유지한 점 등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두 사람은 가천대 캠퍼스 내 야외 테이블에서 마주 보고 대화했다. AI는 “자연광이 드는 장소는 ‘새 출발’과 ‘화해’를 뜻하는 상징적 무대”라며 “과거 양숙 이미지를 ‘햇빛 아래 화해’라는 서사로 전환하는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봤다. 특정 후보의 당사나 캠프 사무실이 아니란 점에서 “관계의 대등성을 암시했다”고도 했다.

또 이 후보는 “3년 전 많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안 의원과는)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AI는 “‘단일화’란 민감한 요구를 ‘같은 편끼리의 편한 대화’로 프레임 전환해 새롭게 판을 깔았다”고 평가했다.